

# 한복의 주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최 경 진

| 目 次   |  |
|---|--|
| I. 序 論<br>II. 한복 주름의 종류<br>III. 한복의 주름部位<br>1) 고구려 복식의 주름<br>2) 통일신라 복식의 주름<br>3) 고려 복식의 주름<br>4) 조선 복식의 주름 | VI. 한복 주름의 표현성<br>1) 정숙성과 품위<br>2) 신분<br>3) 儀禮<br>4) 美的 표현<br>V. 結 論<br>參考文獻 |

## I. 序 論

의복의 주름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고대 이집트 왕과 왕비의 정교하게 주름 잡은 린넨의상과 로인스커트는 특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써 부여 되었다.<sup>1)</sup> 파라오는 그들의 주신인 태양신 Ra의 구현체로써 최고의 神官, 군사 지휘관, 지주 등의 권력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그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 자신의 신성왕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복식을 즐겨 사용하였다. 즉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수직선의 주름을 넓고 우아한 Gown형 의복의 전체에 또는 부분적으로 잡아 태양신(Ra, Amon)의 아들임을 과시하였다.<sup>2)</sup>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왕조의 왕과 왕비의 의상에서 정교하게 접은 형태의 주름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구려 고분 벽화의 허리에서 밑단까지 정성들여 접은 주름치마를 볼 수 있다. 특히 한복처럼 평면적인 의복에서는 주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구성은 입체형인 인간이

입으면 이에 따른 활동성에 필요한 여분 처리가 요구되며 이것을 주름과 트임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한다. 평면에 대한 유일한 입체성인 주름은 품을 넓히고 풍만한 면적의 부풀림과 동시에 의복의 수직의 美를 나타내어 길이도 증가시킨다.

한국어로 주름은 접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한가지로 표현되지만 영어로는 pleat, gathers, gaugeing이며 한문으로는 襞積, 襠로 쓰인다. 襠는 團領과 直領의 옆의 접힌 부분을 칭하는 것으로 주름에 포함한다.

남녀 한복에 나타나는 주름은 삼국시대에는 복식 유물이 없으므로 벽화 위주로 조사하고, 고려시대와 이조중기까지는 유물과 문헌을 통하여 이조 후기의 복식은 실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주름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형태와 종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주름이 어떤 의복의 어떤 부위에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 주름이 표현하는 정숙성과 품위, 신분, 儀禮, 美的 표현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1)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Pub., 1965. p. 11.

2)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3, p. 15.

## II. 한복 주름의 종류

한복에서 사용되는 주름의 종류는 pleat, gathers, gaugeing, 襷가 있다. Pleat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치마주름, 赤綃裳, 裳, 전행옷치마, 喪服의 冠에 쓰이며, gathers는 조선시대 치마, 속바지, 속곳, 천의, 帖裏 등에 사용된다. Gaugeing은 帖裏이나 腋注音에서 나타나며, 襷는 團領과 直領의 허리옆의 튀어나온 부분이다.

한복 주름의 형태는 외주름, 맞주름, 이중 맞주름이 있다. 외주름은 한복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름이며, 맞주름에는 inverted pleat와 box pleat가 있으며 inverted pleat는 속바지, 속곳, 천의의 중심부분에 쓰이며 box pleat는 長衫, 巫服 帖裏에 사용된다. 주름을 잡는 방법에는 온주름, 반주름이 있다.

## III. 한복의 주름部位

### 1) 고구려 복식의 주름

고구려 의복의 주름은 남녀의 긴저고리와 남녀의 치마, 바지에서 나타난다.

#### ① 긴 저고리의 주름

여자의 긴저고리 주름은 안악 제3호 무덤(4세기 중엽)의 여주인공 옆에서 시중을 드는 시녀의 옷으로 허리 밑부분은 gathers를 접었으며 위의 옷과는 다른 색깔이다. 남자의 긴저고리 주름은 행렬도에 旗를 든 보병의 옷옷 허리 밑부분의 gathers와



<그림 1> (고구려 고분 벽화)

덕흥리 벽화무덤(408年) 주인 실내 생활도 마부의 옷 허리부분의 gathers를 볼 수 있다<그림 1>.

#### ② 치마의 주름

안악 제3호 무덤(4세기 중엽)의 여주인공 옆에서 시중을 드는 시녀의 치마 주름은 pleat가 아닌 gathers 이다. 角抵塚(4세기 말)의 여자 주인공은 袍밑에 pleat 치마를 입었으며 치마밑에 이중선이 둘러져 있다. 무용총(4세기 말~5세기 초)의 시녀도 에도 똑같이 선을 두른 pleat 치마를 입었으나 길이가 짧아 속에 입은 바지와 발이 보인다. 장천 제1호 무덤(4세기 말~5세기 초)의 야유 수렵도에서 여자 주인공은 袍밑에 넓은 선을 댄 고운 pleat 치마를 입고 있으며, 시녀는 袍밑에 선을 댄 굵은 pleat 치마를 입고 있다.三室塚(5세기 초)의 여자 주인공과 시녀는 袍밑에 선을 댄 넓은 pleat 치마를 입고 있으며, 덕흥리 벽화 무덤(5세기 초)의 주인 실내 생활도에 시녀들이 굵게 주름 잡힌 치마와 치마밑에 바지가 보인다. 수산리 벽화 무덤(5세기)의 여주인공은 8개의 다른 색깔의 천을 이어서 만든 색동 pleat 치마를 입었으며 여시중군은 pleat 치마를 입고 있다 <그림 2>.

남자의 치마 주름은 무용총 주실 북벽 접견도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승려인 듯한 2인의 삭발 남자를 볼 수 있으며 袍아래에 좁은 pleat 치마를 입고 있다.

#### ③ 바지의 주름

안악 제3호 행렬도 보병들은 모두 허리부분에 주름이 있는 바지를 입고 있다. 장천제1호 무덤의 남자는 허리부분과 바지부리부분에 주름이 있는 바지를 입고 있다<그림 3>.

위 고찰결과 고구려 복식의 주름은 치마의 pleat와 치마단에 다른 색의 천이며, 다른 색깔의 천을 이어서 만든 색동주름치마이다. 치마의 넓은 폭과 고운 pleat는 높은 계급의 여성이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 2) 통일 신라 복식의 주름

통일 신라시대의 복식은 문헌에 기록된 극히 단편적인 것으로 당시의 복식의 형태를 알기에는 너무나 막연하다. 다만 여기서 주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복식으로는 裳과 袍가 있으며 唐의 복식을 참고하여 추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 평민 복식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국속의 구조였으며 이



<그림 2> (고구려 고분 벽화)



<그림 3> (고구려 고분 벽화)

唐制의 복식은 관리나 왕가 중심으로 제복의 성격을 띤 계급 복식이었다고 하겠다.<sup>3)</sup> 신라는 법흥왕 때에 백관들의 四色公服制度를 제정하였고 진흥왕 때에 唐의 복식을 청습하게 됨으로써 남자가 치마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국 복식도래 후에는 이중 조직으로써 남자도 귀족, 관리, 특수계급에 있어서는 衣裳連結의 옷을 입었고 이것이 계급적 우월감의 표상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한다.<sup>4)</sup> 경주 황남동 출토 부부상 土偶에 부인이 주름잡힌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sup>5)</sup>

3) 고려 복식의 주름

고려 복식의 주름은 여자의 치마, 남자의 裳에 주로 나타나고 帖裏과 長衫, 半臂에서 볼 수 있다.

① 치마의 주름

㉠ 여자 치마

賤便에 施裙이라는 치마가 나타나는데 이 치마는

3) 김동욱, 「한국 복식사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p. 13.

4) 김동욱, 「이조 전기 복식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1963, p. 17.

5) 「한국 복식사 사전」, 김영숙, 서울; 민문고, 1988, p. 72.

8폭으로 만들었고 허리를 높이 잡아매어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으며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sup>6)</sup>

㉠ 남자의 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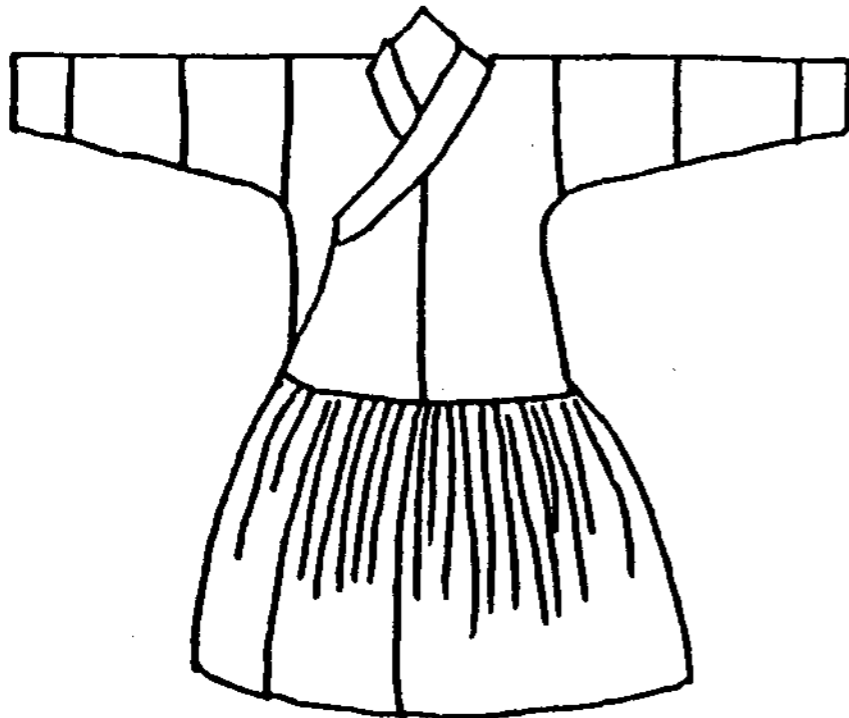
男裳은 고려도경 승복에서 볼 수 있고 이종조(1147~1170)의 상정예문 면복제도에 나타나고 있다. 이 면복제도에 纁裳이 나타나는데 이 纁裳은 前三 後四幅으로 되어 있다.

㉡ 帖裏의 주름

문헌상 帖裏을 볼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 鄭石歌의 '철낙'이고 조선 초기의 「악학계범」에 單帖裏과 防衣의 명칭으로 소개되어 있어 이미 고려시대부터 착용되고 있었던 의복으로 확인된다<sup>7)</sup>〈그림 4〉



單帖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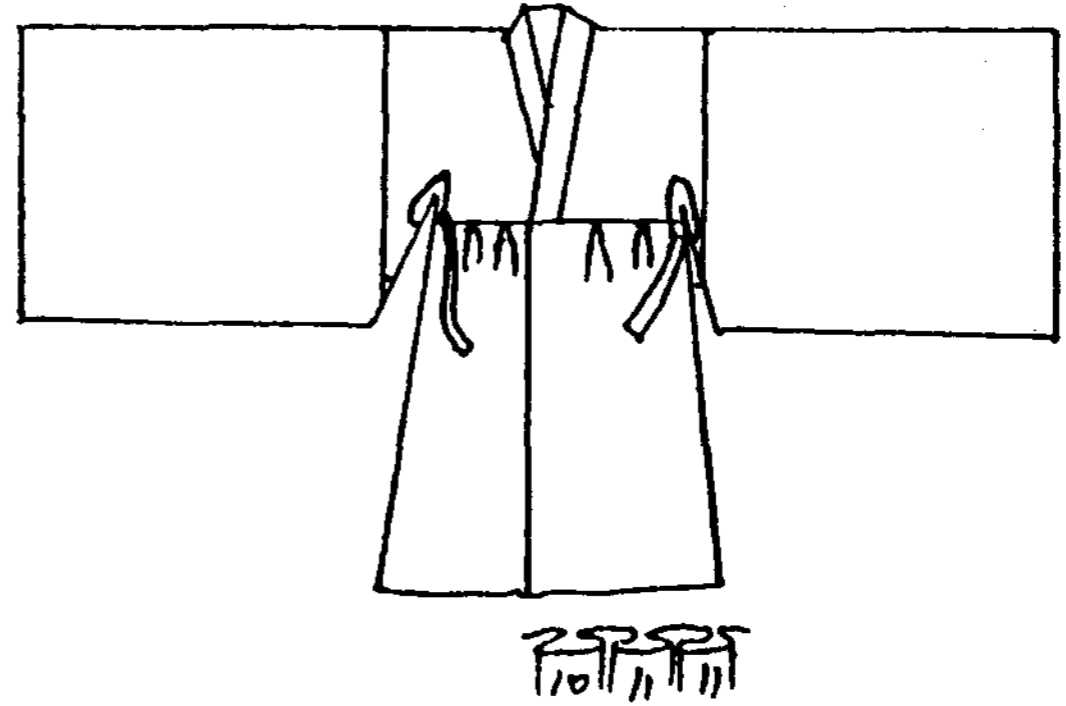
防衣

〈그림 4〉 帖裏(악학계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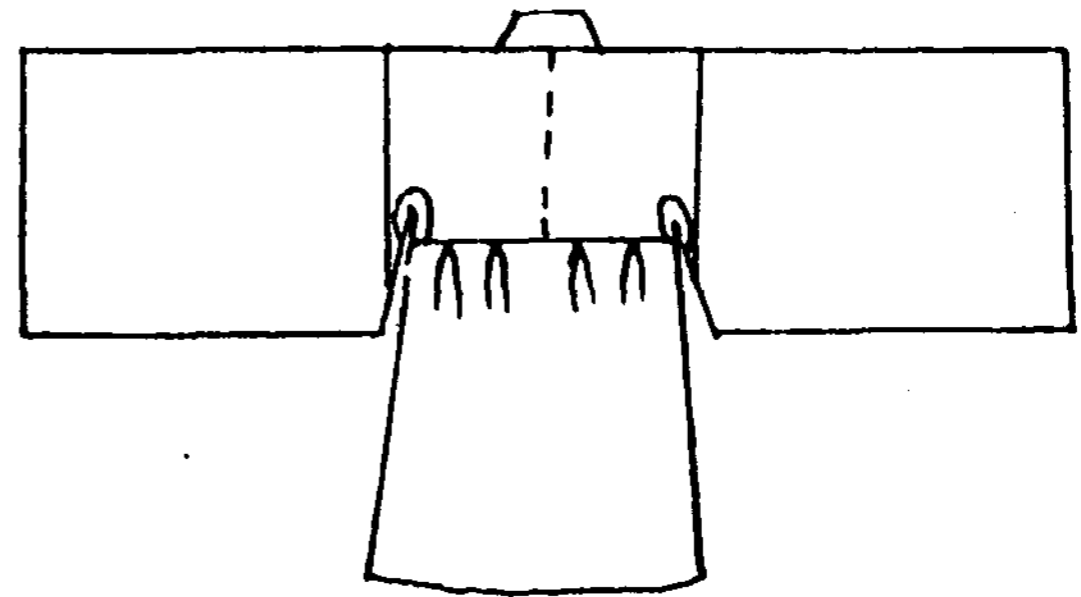
㉢ 長衫의 주름

전남 순천 송광사에 보조국사 長衫(1158~121

0)의 복원품이 보존되어 있다. 이 복원품 주름은 맞주름 형태로 주름의 폭은 11cm로 넓으며 長衫주름은 전체 10개이다<sup>8)</sup>〈그림 5〉



長衫



長衫

〈그림 5〉 長衫

㉣ 半臂 옆허리 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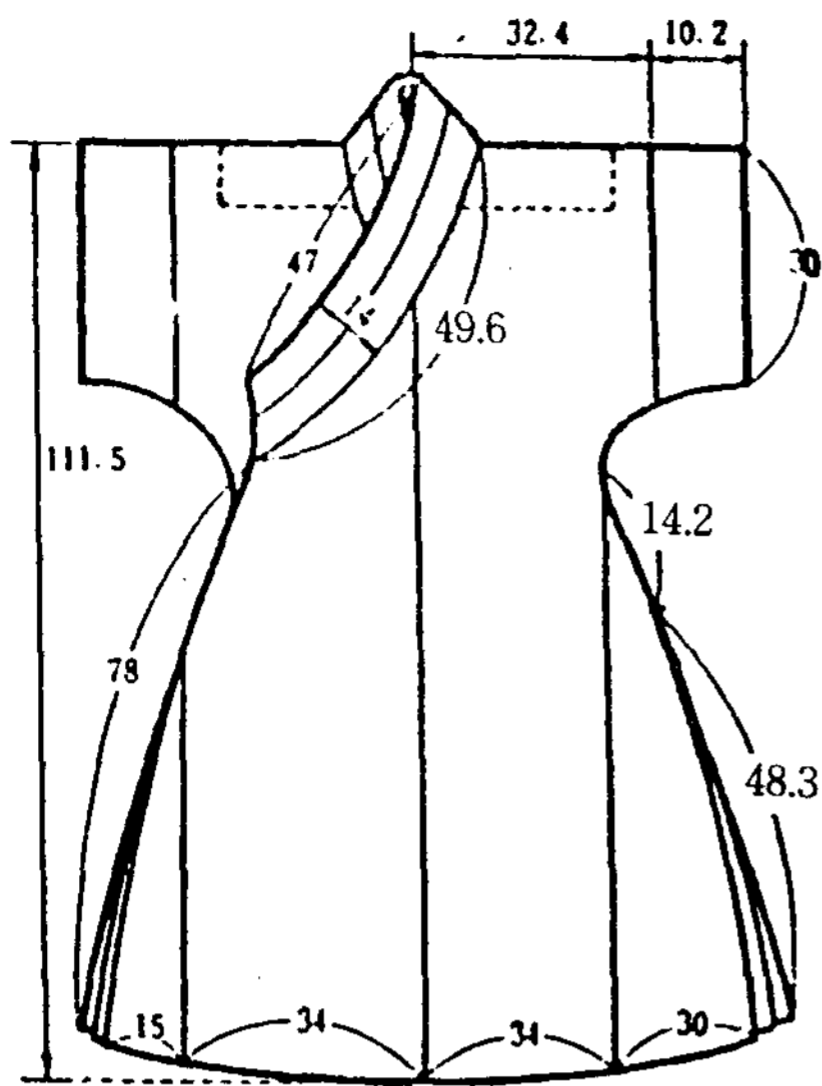
서산 문수사에서 나온 고려시대의 半臂白紵袍는 약 1346년경에 착용했던 것으로 半袖 홉옷으로 밑바대를 댄 특징이 있으며 깃은 높고 길며, 이중깃이며 목판형으로 옆선에서 끈으로 매도록 제작되었다. 진동선 밑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등글로 완만하게 재단되어 있다. 허리선 아래 양옆이 절개되었고 이중 주름이다<sup>9)</sup>〈그림 6〉.

6) 장석향, "여자 치마의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71, p. 23.

7) 고복남, 「한국 전통복식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86, p. 287.

8) 임영자, "한국 종교 복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대, 1989, p. 105.

9) 고복남, Ibid., p. 339.



<그림 6> 腋注音

위 고찰 결과 고려시대의 주름은 중국복식의 영향으로 의례복인 남자 裳의 pleat이며, 고구려시대의 袍에 없었던 주름이 생긴 것이다. 帖裏과 長衫은 허리선을 절개하여 밑부분에 주름을 넣었으며 허리선이 절개되지 않은 半臂는 옆에 주름을 넣었다.

4) 조선시대 복식의 주름

조선시대 복식의 주름은 여자 치마와 남자의 裳, 여자의 속바지, 袍 종류인 帖裏, 團領, 直領, 長衫에서 볼 수 있으며 喪服의 冠에도 나타난다.

① 치마의 주름

㉞ 여자 치마

치마 주름에 대한 기록으로는 <경국대전> 성종 8년(1477)에 “옷은 다 흰것으로 하는데 布縷가 굵은 것이 많으며 치마는 퍼지게 하되 襞積을 또한 넓게 잡는다”고<sup>10)</sup> 하였다. 치마주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치마 주름 비교표

(단위 : cm)

|      |      |           |      |              |       |           |       |
|------|------|-----------|------|--------------|-------|-----------|-------|
| 년 도  | 1530 | 1576~1626 |      | 임 란 직 후      |       | 1574~1669 |       |
| 명 칭  | 순천김씨 | 구 레 손 씨   |      | 박 장 군        |       | 남 양 흥 씨   |       |
| 재 료  | 모시   | 소색명주솜     | 명주겹솜 | 진갈색 목단 당초문단겹 | 갈색명주솜 | 화문단겹      | 소화문단솜 |
| 주름나비 | 2    | 2.8       | 2.5  | 4.5          | 3.5   | 3.5~4     | 2~2.5 |
| 치마폭  | 420  | 380       | 362  | 310          | 217   | 264       | 3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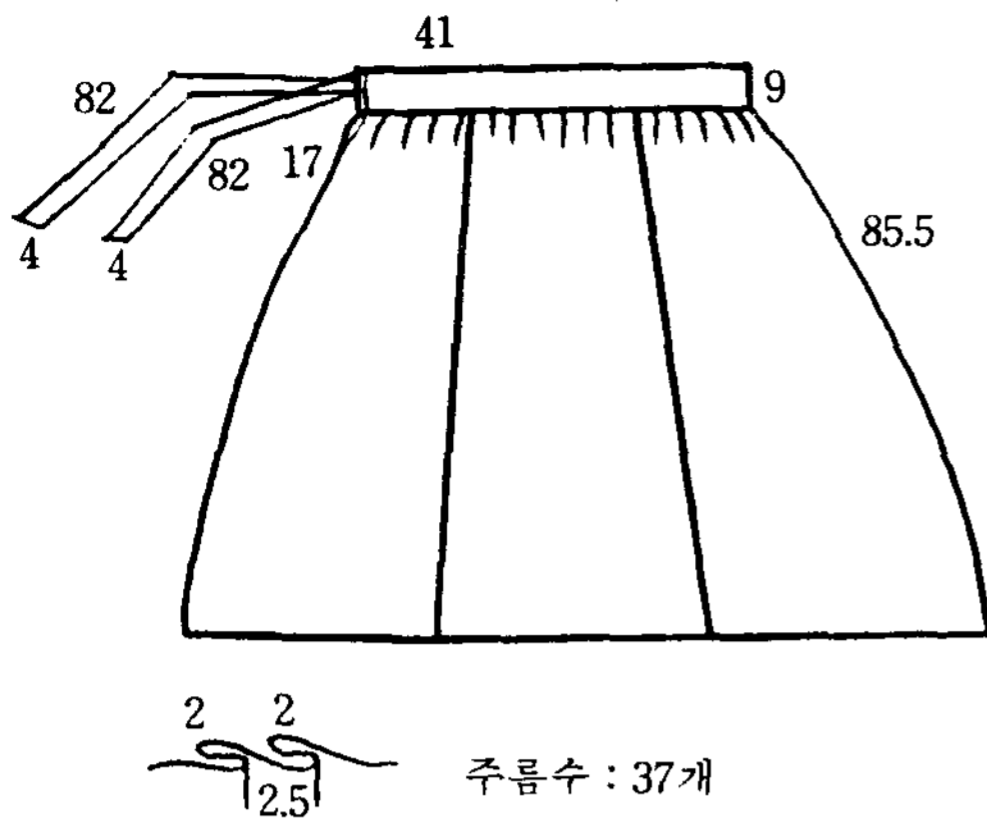
|      |           |      |                |     |     |     |      |       |
|------|-----------|------|----------------|-----|-----|-----|------|-------|
| 년 도  | 1605~1672 |      | 1835~1878      |     |     |     | 1910 |       |
| 명 칭  | 이후정 소장    |      | 김해 허씨(김병국의 부실) |     |     |     | 윤 비  |       |
| 재 료  | 목 면       | 누비치마 | 운문단겹           | 겹   | 홀   | 홀   | 홀    | 대란치마  |
| 주름나비 | 2.8       |      | 2.0            | 1.2 | 1.5 | 2.0 | 0.7  | 0.5   |
| 치마폭  | 380       | 342  | 234            | 370 | 305 | 350 | 360  | 325.5 |

치마주름은 시대별로 본 결과 후세로 내려오면서 주름 폭이 적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겹치마, 홀치마, 솜치마에 따른 주름 폭에는 별 차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치마인 먹물들인 무명치마는 통치마로 오른쪽이 터져 있으며 치마 폭이 좁고 주름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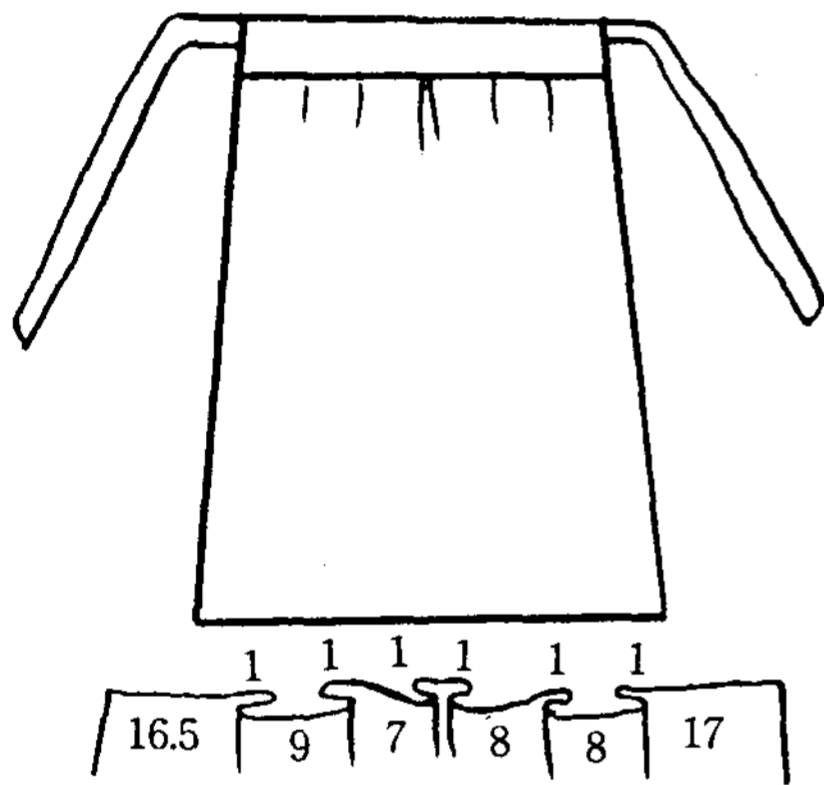
㉟ 행주치마

중종 22년(1520)에 나온 訓蒙字會에 행주치마가 보이며 행주치마는 중종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은 서민 무명 흰 행주치마로 주름 넓이가 7~9cm로 넓으며 주름을 접은 모양이 중심은 inverted 형태이며 양옆은 box형태로 특이

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증보 문헌비고」, 서울 : 천풍인쇄주식회사, 1980. 예고 제80권, p. 293.



<그림 7> 서민치마(경북궁 민속 박물관 5182-1)



<그림 8> 행주치마(경북궁 민속 박물관 5182-2)

하다. 속으로 들어간 주름량이 1cm로 매우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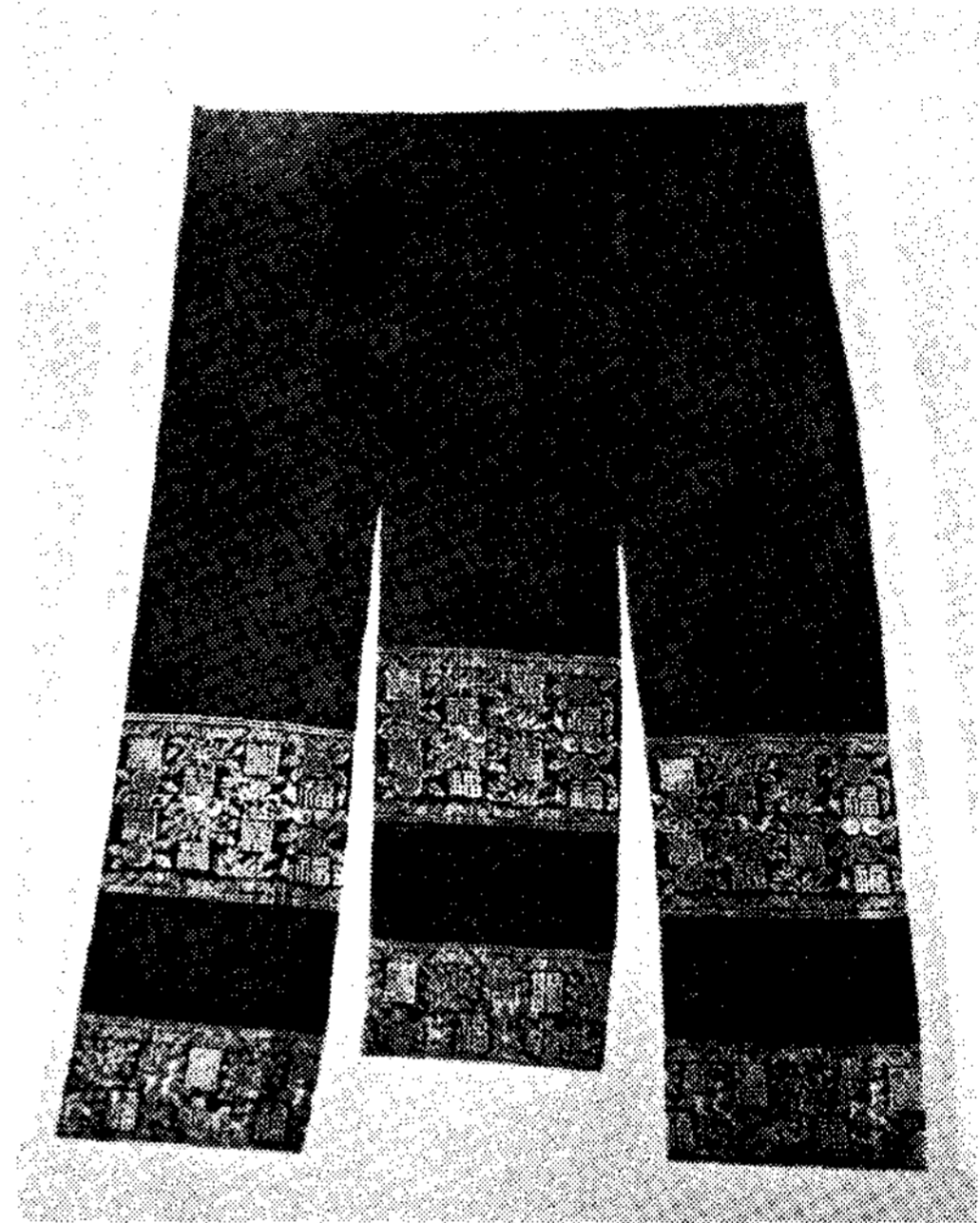
㉞ 無竹伊

無竹伊는 3합, 5합, 7합이 있으며 이대의 운형궁 나인들이 만든 無竹伊는 치마폭이 310cm, 290cm로 넓으며 주름의 넓이는 0.5cm, 1.2cm이다.<sup>11)</sup> 無竹伊는 목면이나 모시로 만들어 풀을 먹여 나무같이 뽕뽕하게 하여 치마를 퍼지게 한다.

㉟ 전행 옷치마

전행 옷치마는 세 가닥을 따로 따로 만들어서 약 110cm 길이의 허리에 붙인다. 옷감은 남색 紗를

사용하며 양쪽 두 가닥의 길이는 약 144cm, 가운데는 135cm이며 황후의 것은 양쪽의 8cm의 공간을 두고 0.7cm의 나비로 28개의 주름을 잡고 황태자비의 것은 32개의 주름을 잡는다. Pleat 주름으로 중간에 2~3줄을 옆으로 고정시켜 주름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sup>12)</sup> <그림 9>



<그림 9> 전행 옷치마(석주선, 『衣』 p. 82)

㊦ 赤綃裳

赤綃裳은 朝服에 입는 裳과 祭服에 입는 裳이 있다. <오례의>에서 裳은 繒으로 하되 그 빛깔은 纁色이며, 일곱 폭으로 하되 앞이 세 폭이고 뒤가 네 폭인데 폭마다 양옆을 각각 1촌씩 꺾매어 削幅이라고 이른다. 허리 사이에는 辟積이 수없이 많다.<sup>13)</sup> 裳을 시대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後代에 올수록 裳의 넓이가 좁아졌지만 주름의 수는 많아졌다. 祭服은 주름의 수가 앞이 奇數이고 뒤가 偶數인 반면에 朝服은 앞이 偶數이고 뒤가 奇數이다 <그림 10>.

11) 장석향, Ibid., p. 54.

12) 김영숙, Ibid., p.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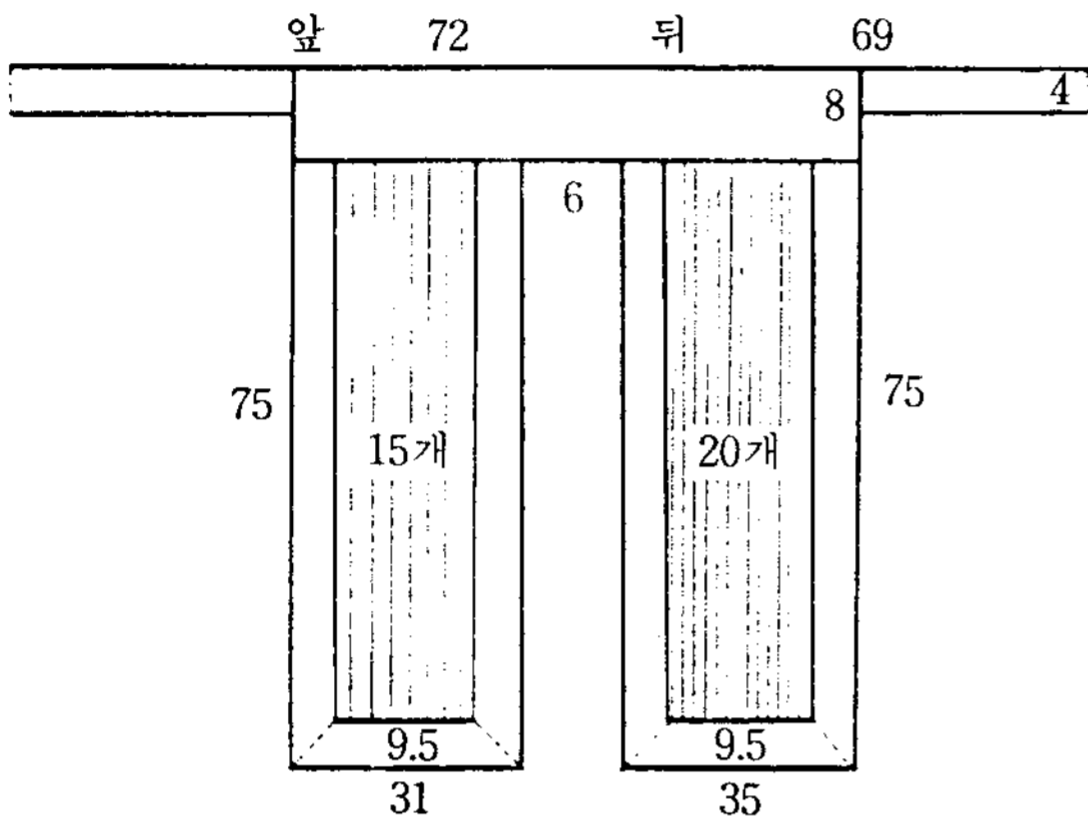
13) 『증보문헌비고』, Ibid., 예고 제79권, p. 211.

<표 2>

裳의 주름 비교표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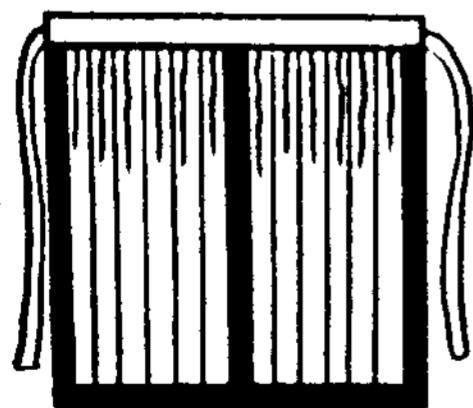
| 년 도   | 1783~1873 |    | 1824 |    |     |    |    |    |
|-------|-----------|----|------|----|-----|----|----|----|
|       | 정완용       | 祭服 | 심동신  | 朝服 | 김병익 | 朝服 | 祭  | 服  |
| 명 칭   | 앞         | 뒤  | 앞    | 뒤  | 앞   | 뒤  | 앞  | 뒤  |
| 주름의 수 | 15        | 20 | 18   | 21 | 22  | 29 | 29 | 32 |
| 裳 넓이  | 31        | 35 | 38   | 42 | 27  | 34 | 28 | 33 |
| 裳 길이  | 75        |    | 77   |    | 80  |    | 83 |    |



<그림 10> 정완용 祭服(경산 정완용 의대)

㊤ 赤裳

文舞, 武舞와 儀物을 잡는 工人이 입는 치마로 홍색 명주로 만들고 검은선을 대었다.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쪽으로 나뉘어 6개씩 허리부터 밑단까지 주름이 있고 그 사이에 또 한개씩 주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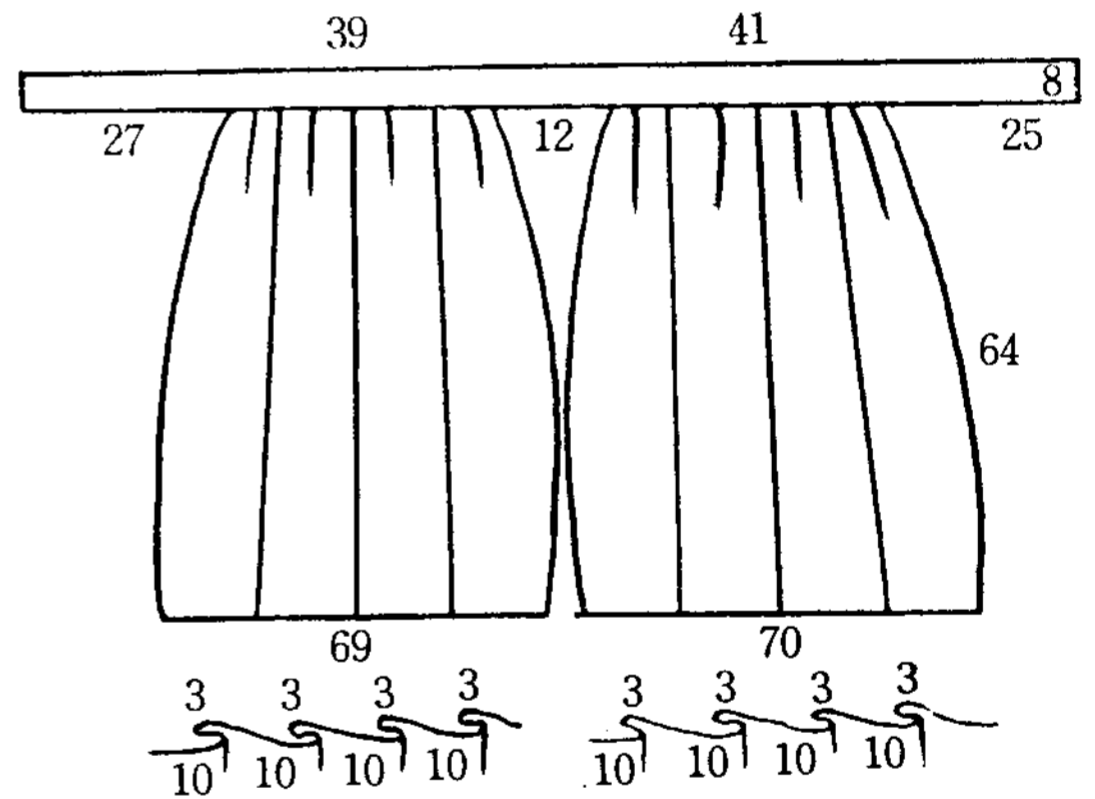
<그림 11> 赤裳  
(악학계범)

㊦ 喪服의 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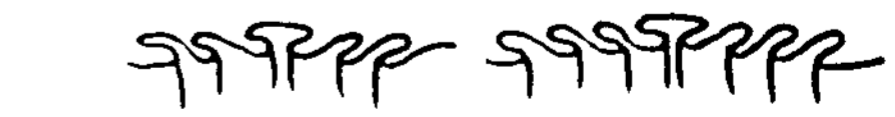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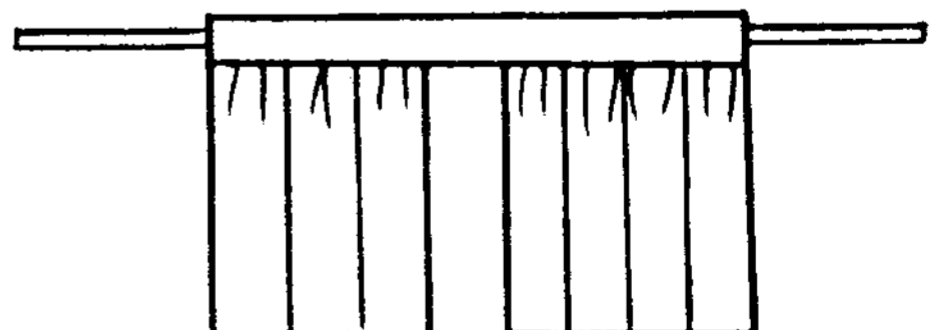
裳의 7幅은 前三幅 後四幅으로 나누어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每幅마다 3개의 주름

(帔)을 만든다. 帔은 每幅의 위를 약간 떠올려서 오른쪽으로 향하여 접고 또 다시 더 올려서 왼쪽으로 접어서 서로 맞닿는 線을 꿰매어 그 가운데를 비우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기를 세번한다.<sup>14)</sup>

<그림 12>는 서민의 裳으로 앞과 뒤를 똑같이 4폭으로 하였으며 매폭마다 주름 하나씩을 잡았으며 주름골의 방향은 전부 왼쪽이다. <그림 13>의 裳은 앞 3폭, 뒤 4폭으로 하였으며 각 폭마다 주름 2개씩을 잡았으며 주름을 잡는 방법은 앞 중심과 뒤 중심에서 맞주름을 잡아 대칭으로 하였다.



<그림 12> 喪服의 裳(경북궁 민속 박물관 5365)



<그림 13> 喪服의 裳(경북궁 민속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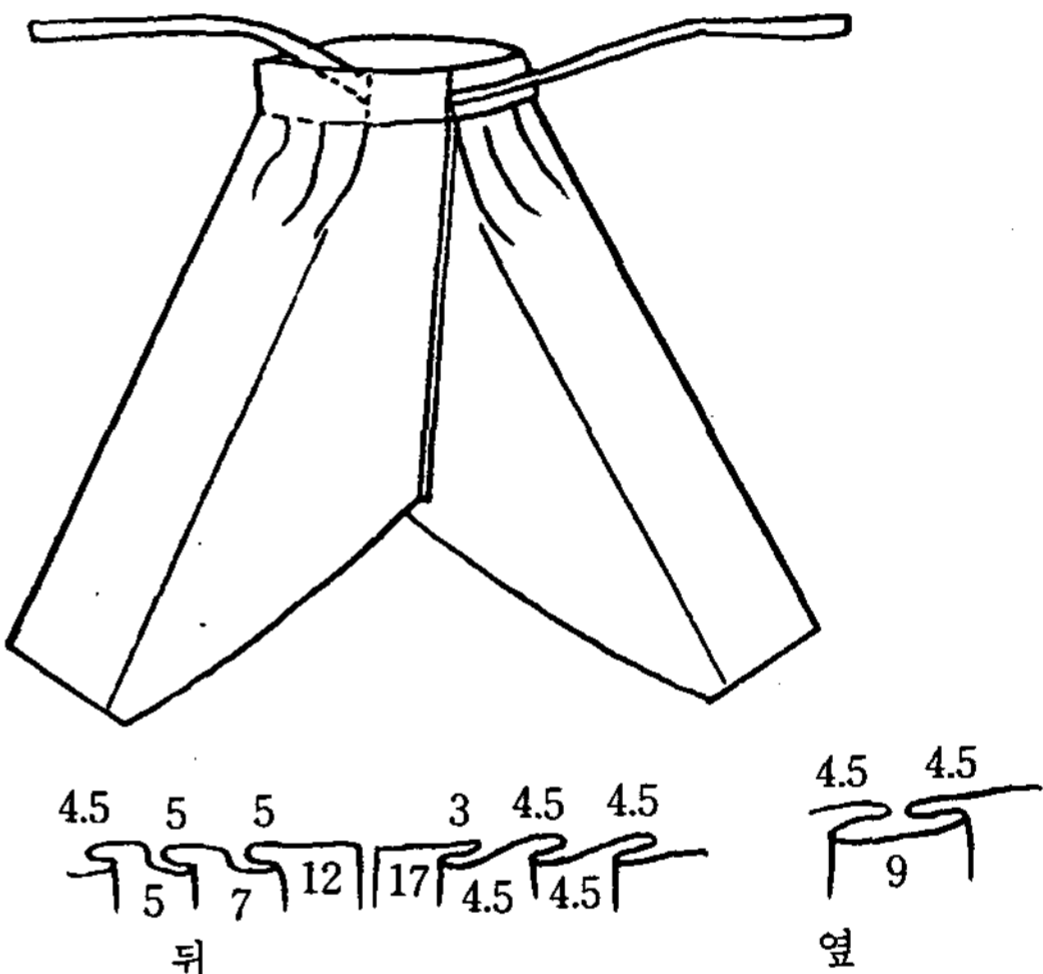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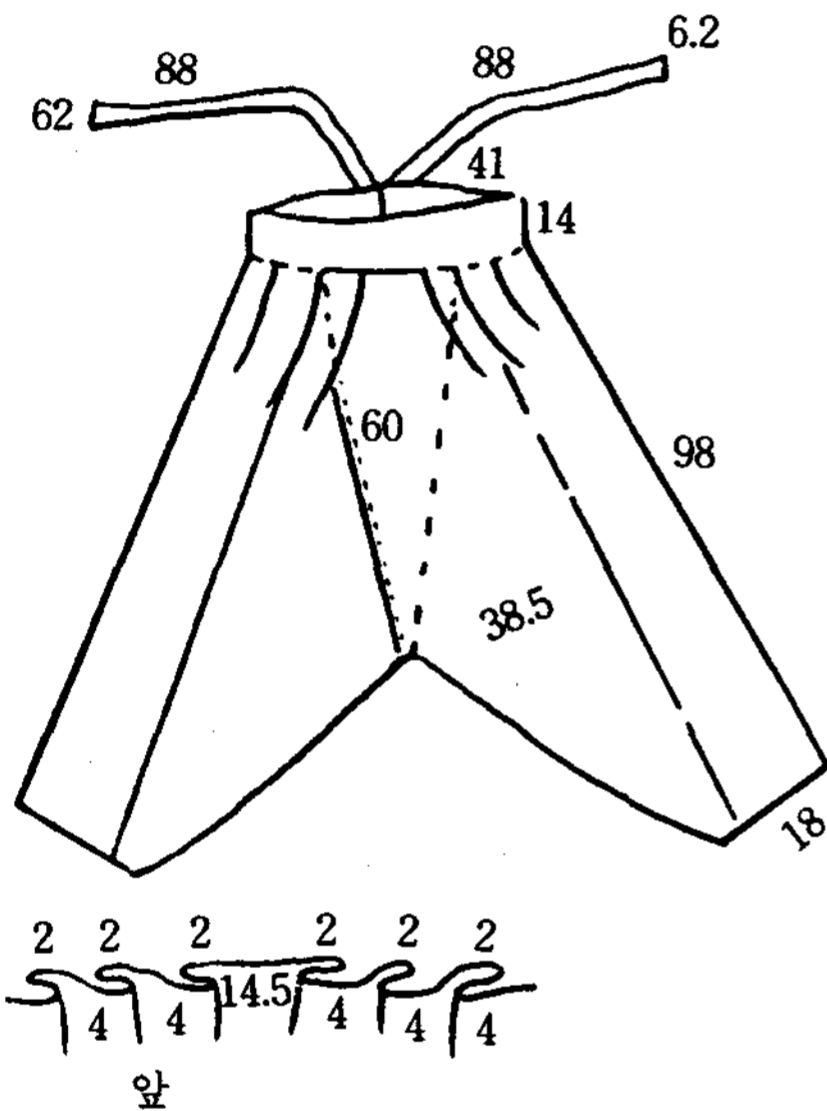
14) 김영자, "喪禮服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대, 1981, p. 31.

② 바지의 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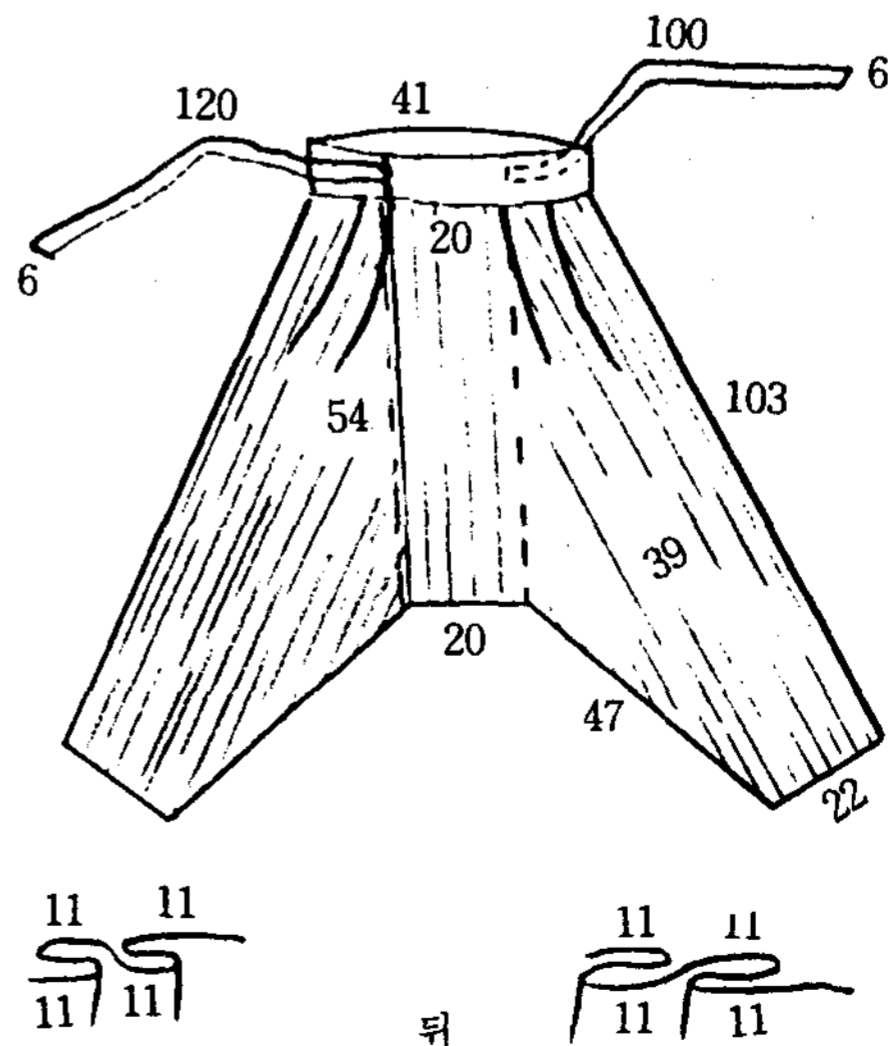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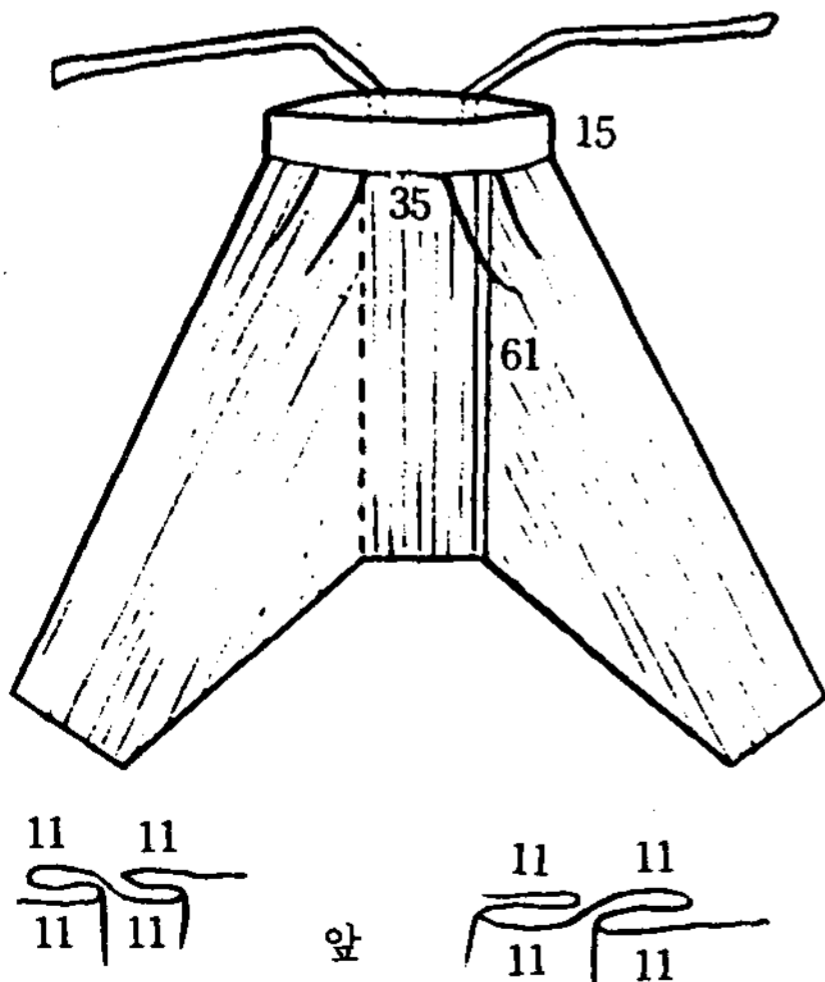
上古시대에는 남자 바지와 여자 바지의 차이가 없이 바지의 주름이 보이나 조선시대에는 남자 바지에는 주름이 없으며 여자 바지에만 주름이 있다. 여자 바지에는 속바지, 단속곳 등이 있으며 속바지에는 앞뒤가 트인 속바지, 뒤만 트인 속바지, 마루 폭이 길게 절개된 속바지, 남자 바지와 같이 마루폭 사폭을 갖는 속바지가 있다. 여자 바지의 주름은 대개 주름 폭이 넓으며 중심선을 향하여 대칭이다.

㉠ 속바지

<그림 14>는 앞뒤가 터지고 뒤로 여미는 명주 속바지로 앞 중심과 뒤 중심을 기준으로 양옆에 3개씩의 주름이 대칭으로 있다. <그림 15>는 앞뒤가 터지고 뒤로 여미는 누비면속바지로 앞중심과 뒤중심을 기준으로 양옆에 2개씩의 온주름이 대칭으로 있다. <그림 16>는 앞뒤가 터지고 오른쪽으로 여미는 명주숨 속바지로 앞뒤 중심을 기준으로 2개씩의 반주름이 있다. <그림 17>은 뒤만 트이고 오른쪽으로 여미는 면속바지로 앞뒤 중심을 기준으로 3개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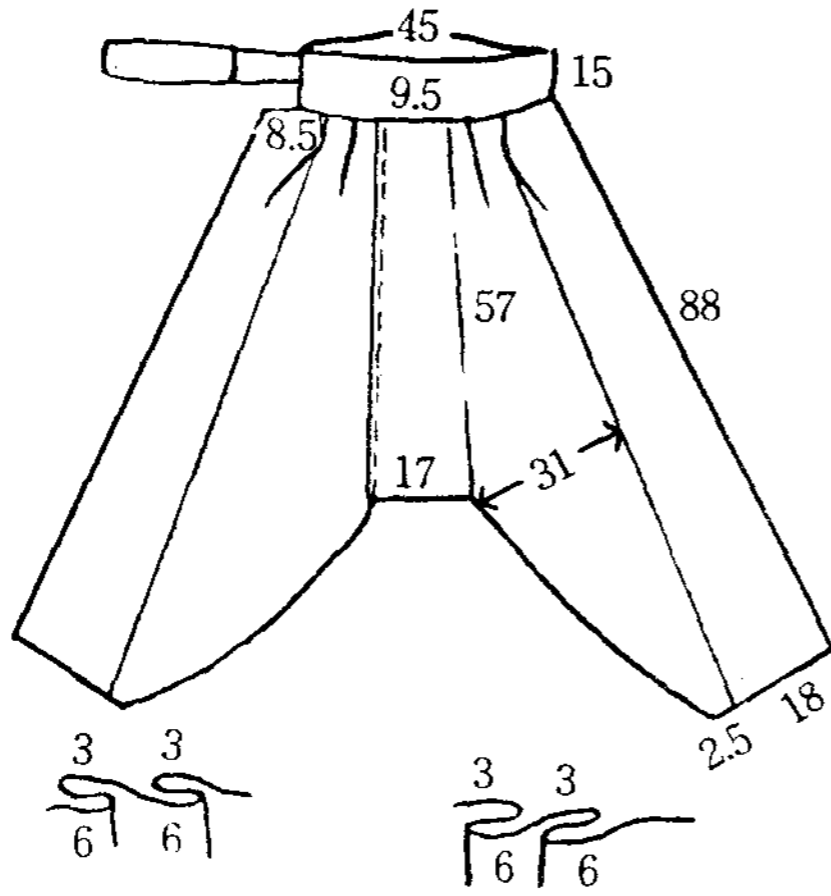


<그림 14> 속바지(경북궁 민속 박물관 4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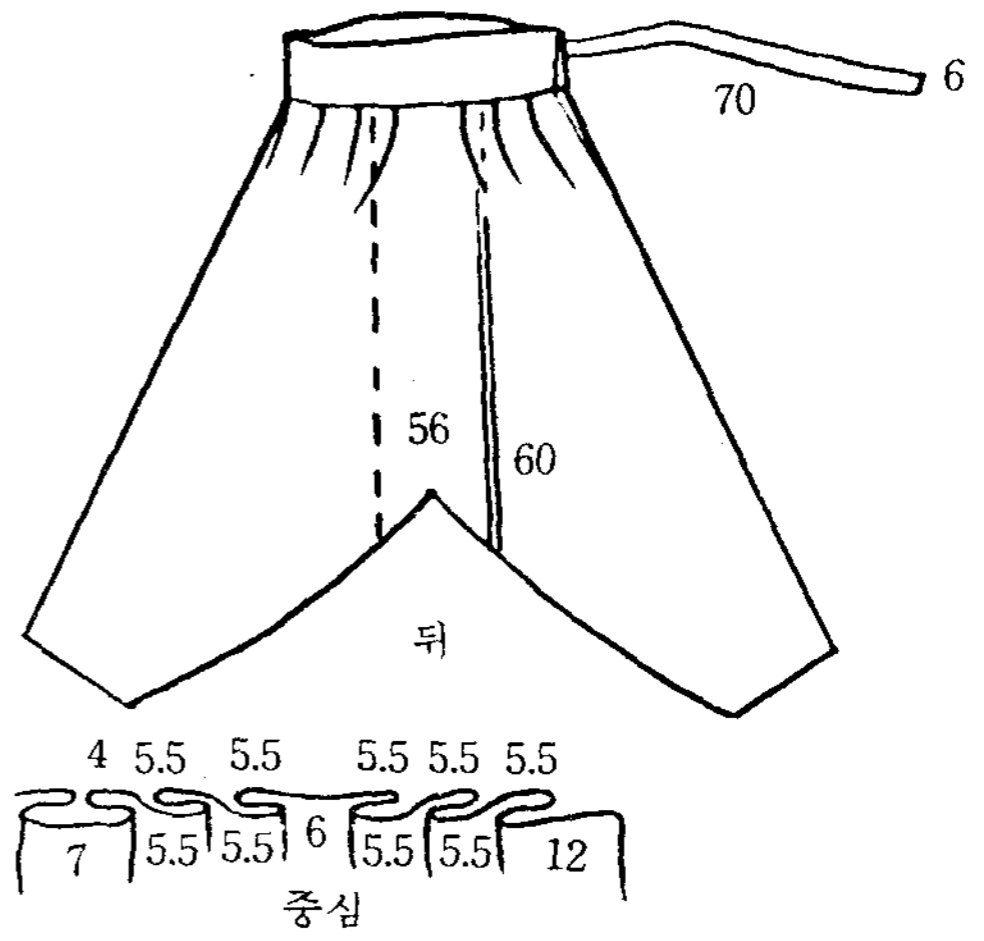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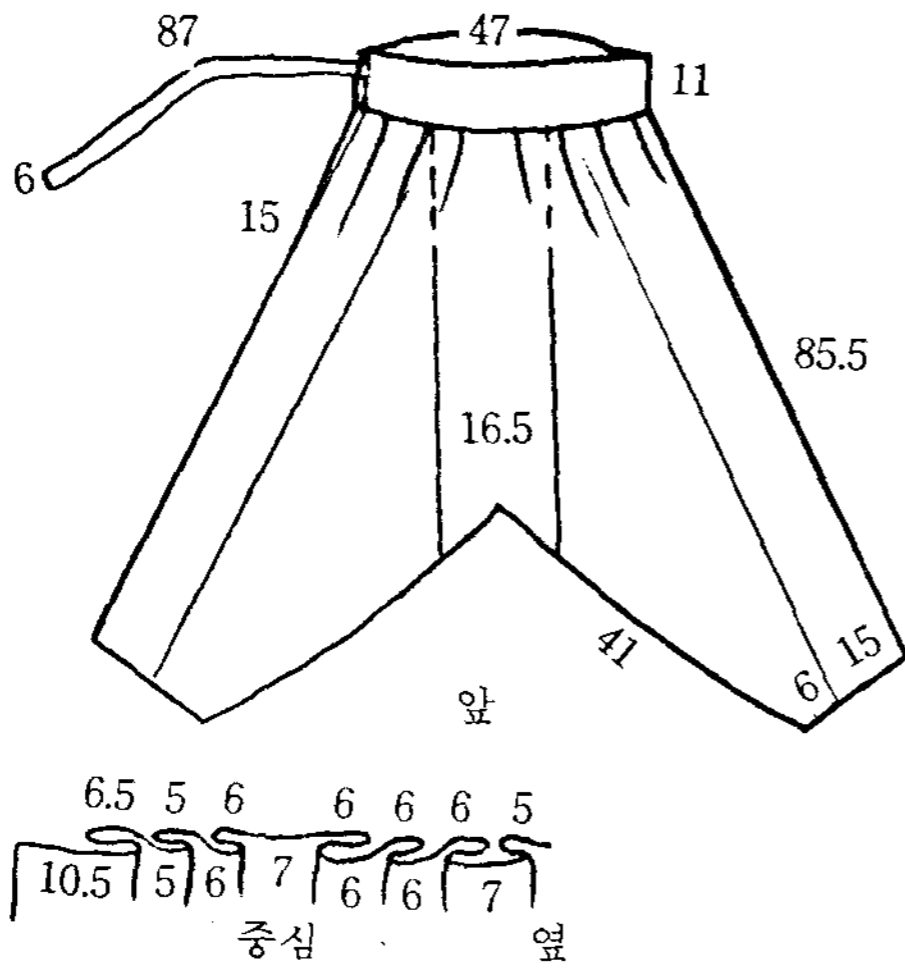


<그림 15> 속바지(경북궁 민속 박물관 4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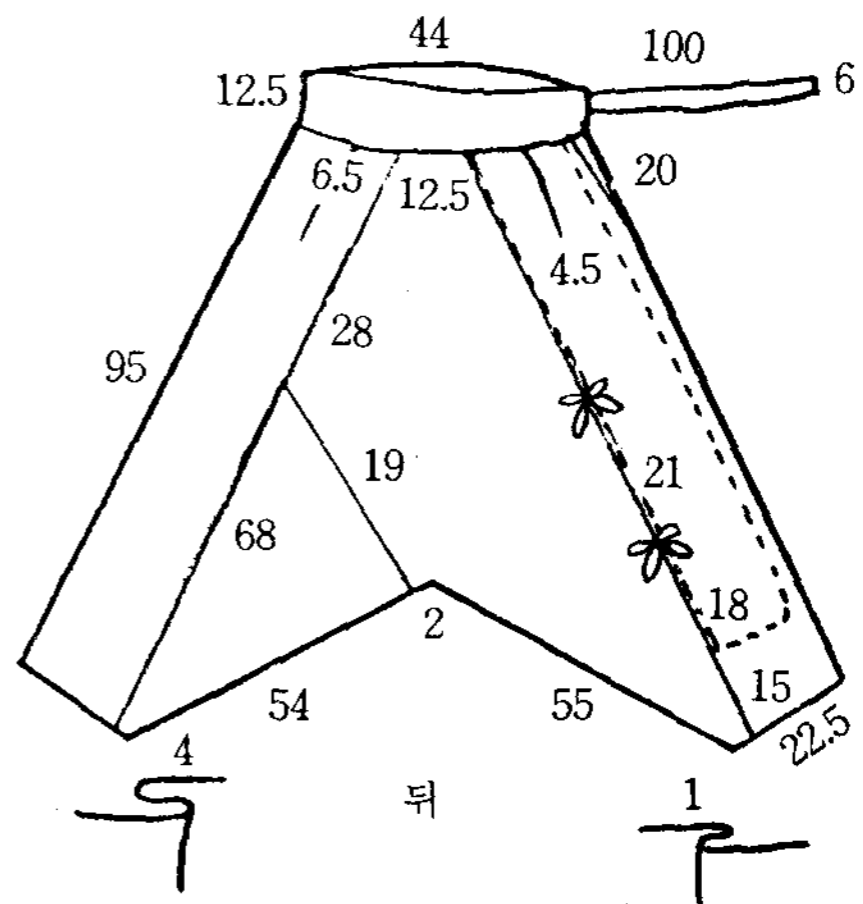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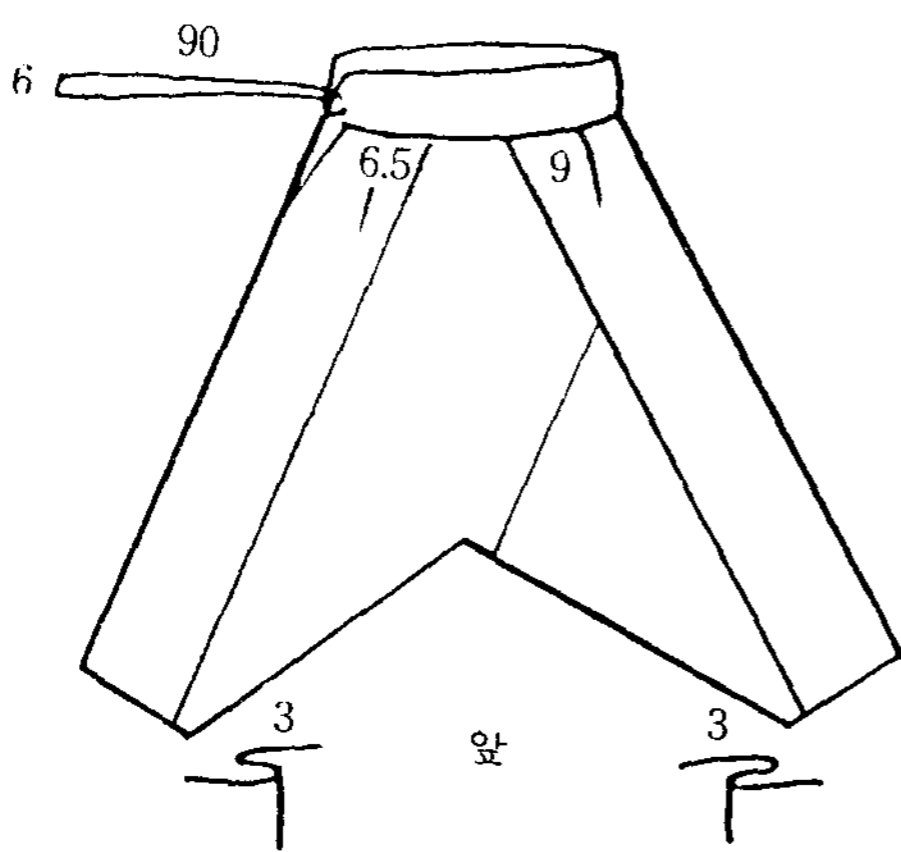




<그림 16> 솜 고쟁이(이대 박물관)



<그림 17> 속바지(경북궁 민속 박물관 7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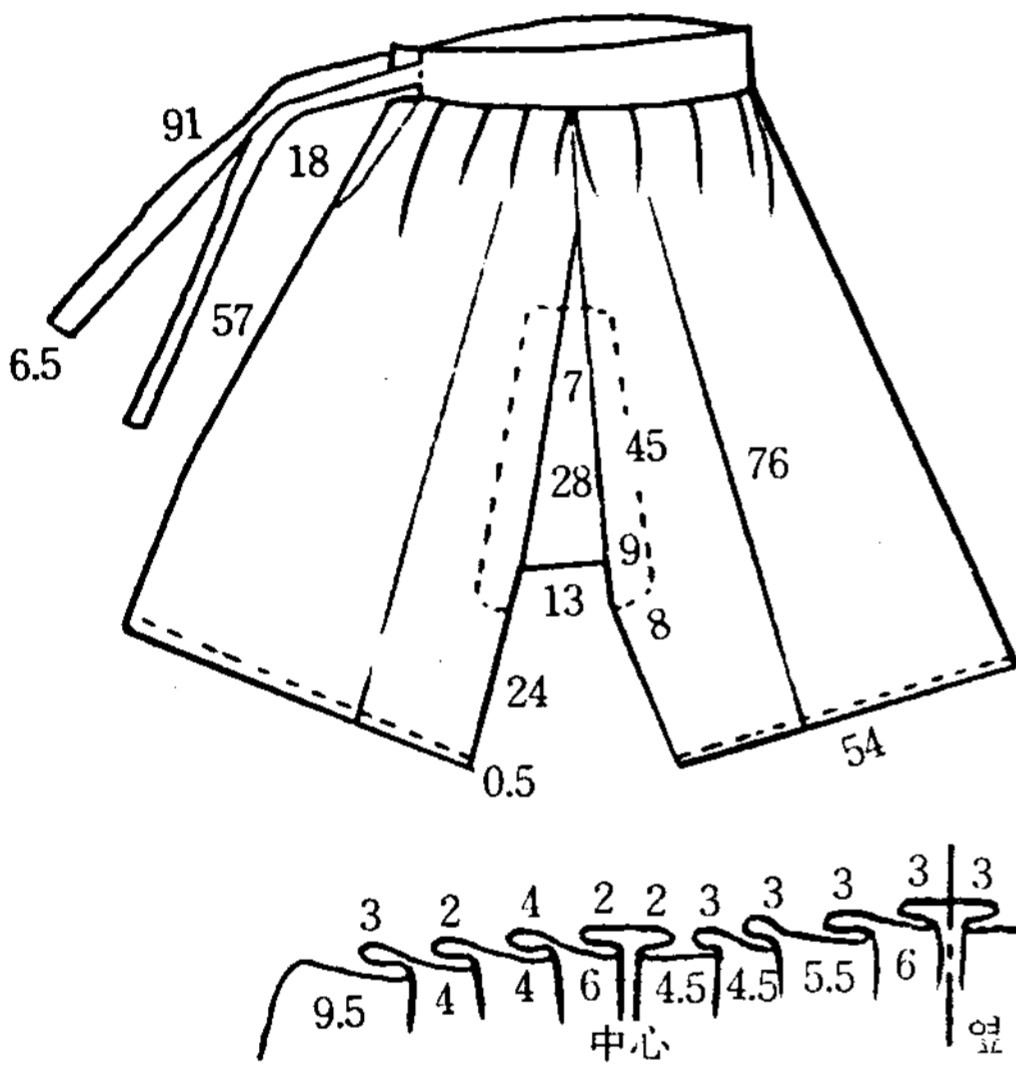


<그림 18> 속바지(경북궁 민속 박물관 6752)

의 온주름이 대칭으로 있다. <그림 18>은 뒤 마루폭이 트이고 오른쪽으로 여미는 면 속바지로 앞뒤 중심을 기준으로 1개씩의 주름이 있다.

㉠ 단속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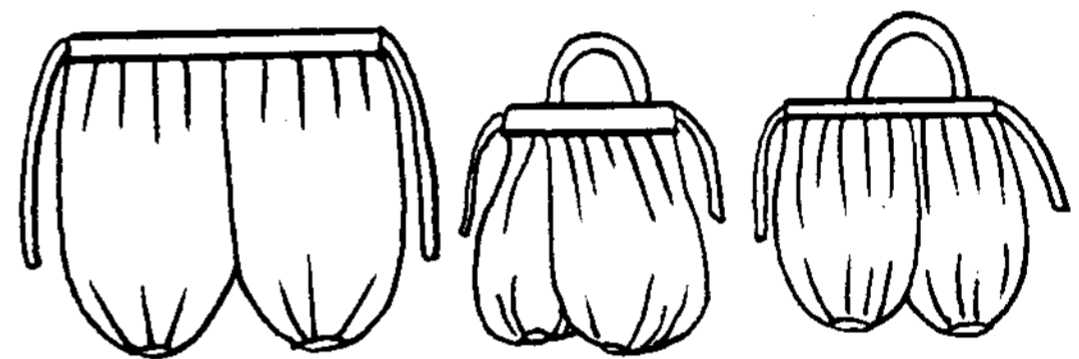
여자들이 치마 속에 입는 가랭이가 넓은 홑옷으로 앞뒤 중앙에서 안쪽으로 주름을 4개씩 대칭으로 잡아 16개를 만들고 허리단을 단다.<sup>15)</sup> <그림 19>는 두꺼운 면단속곳으로 앞뒤 중심부분만 맞주름이며 나머지는 주름골이 전부 왼쪽으로 향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9> 단속곳(경북궁 민속 박물관 7300)

㉡ 襪裙

襪裙은 뒤가 갈라지고 어깨에 걸치는 끈이있고 치마 말기와 바지부리에 주름을 넣어 넓게 하였다. 꼭 여자 속옷 종류인 고쟁이 같이 보이며 絹, 紗, 羅, 段 등의 가격이 비싼 비단으로 만들었고 4품 이상 正妻인 자에게 한한 것으로 보아 예식때 입는 바지 종류로 尊者服임을 알 수 있다.<sup>16)</sup> <그림 20>



<그림 20> 襪裙(樂學軌節)

③ 帖裏의 주름

帖裏의 주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帖裏 주름 비교표

(단위 : cm)

| 년 도  | 壬 亂 以 前   |        |           |           |        | 1567~1596 | 1580~1596 |        |
|------|-----------|--------|-----------|-----------|--------|-----------|-----------|--------|
|      | 順川金氏      |        | 金 緯       |           |        | 金德領 장군복   | 長興任氏服     |        |
| 명 칭  | 흰색모시      | 갈색명주누비 | 흰색명주      | 자색명주      | 갈색명주   | 흰색모시      | 흰색무명      |        |
| 주름나비 | 0.1       | 0.2    | 2.5       | 3         | 2.2    | 맞주름 5     | 1.5       |        |
| 그 립  | 21-1      | 21-2   |           | 21-3      | 21-4   | 21-5      | 21-6      |        |
| 년 도  | 1590~1630 |        | 1574~1669 | 1660~1720 |        | 1850~1910 |           |        |
| 명 칭  | 朴信龍 장군복   |        | 동래정씨      | 李 晃 服     |        | 윤용렬 장군복   |           |        |
| 재 료  | 청색명주      | 홍색명주   | 삼죽항라      | 북청색운문단    | 담황색운문단 | 북청색운문사    | 남색을라      | 북청왜사항라 |
| 주름나비 | 2.5       | 7      | 1.5       | 2         | 2.2    | 1         | 0.4       | 1      |
| 그 립  | 21-7      | 21-8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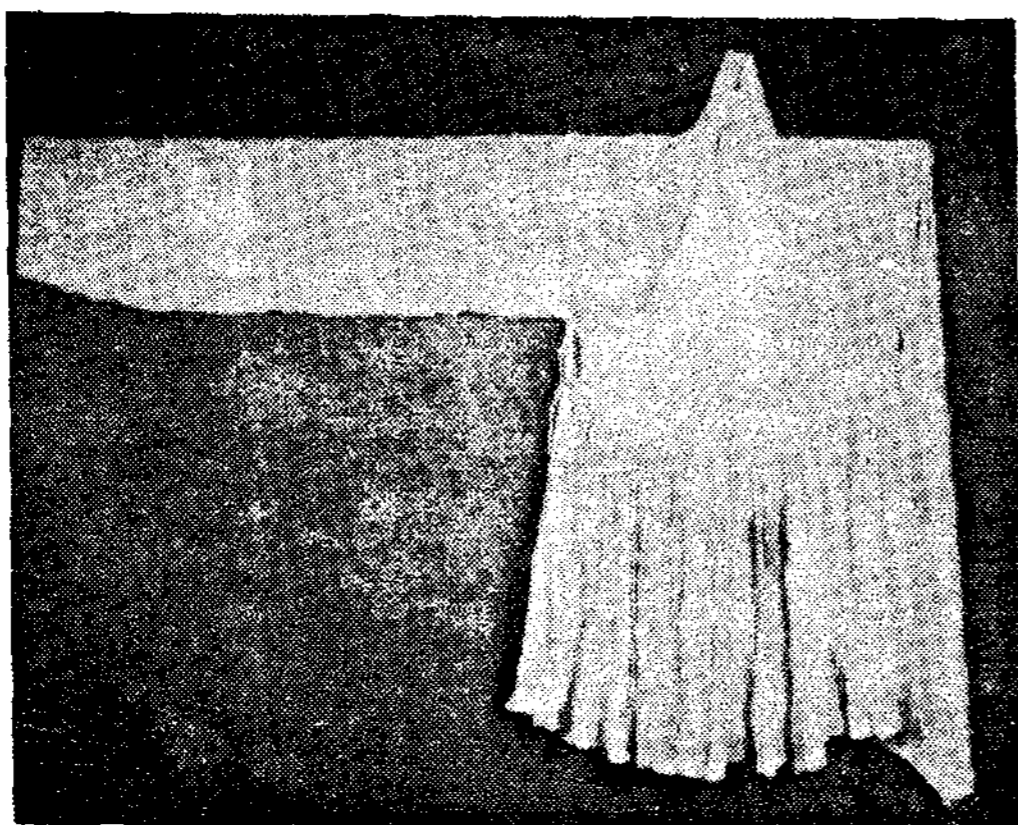
15) 정영숙, Ibid., p. 139.

16) 장석향, Ibid., p. 38.

順川金氏 帖裏은 gaugeing이며 金緯, 長興任氏, 朴信龍 장군 동래정씨, 윤웅렬 장군의 帖裏은 gathers 이다. 金德齡 장군 帖裏은 맞주름이며 李晃 帖裏은 pleat이다. 석주선 민속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래정씨, 나주정씨의 많은 帖裏은 대부분 gaugeing이다. 巫服 帖裏은 여밈의 분량이 없이 앞의 모양이 左右 대칭형으로 고려대학의 紅色 帖裏은 gather로 주름폭이 4cm이다. 帖裏의 주름을 시대별로 보면 임란전후의 帖裏은 上衣가 길고 下衣가 짧으며 주로 gaugeing이며 후대로 내려올수록 上衣가 짧아지고 下衣가 길어지면서 gathers 와 pleat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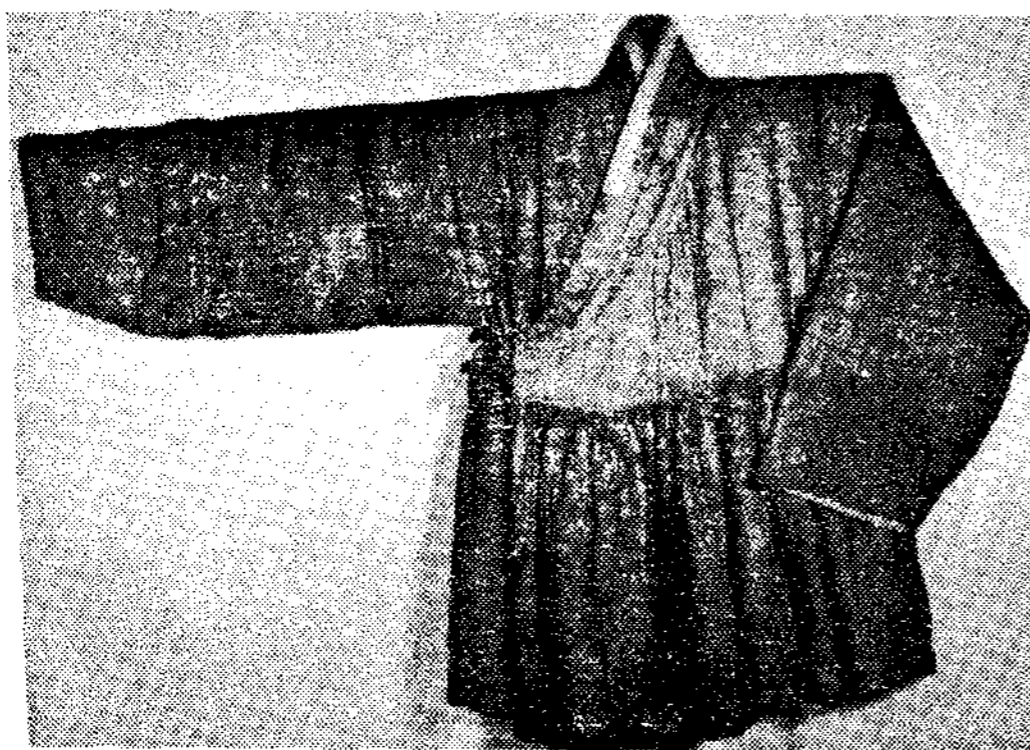
<그림 21-3> 紫色明紬 帖裏 (중요 민속자료 제1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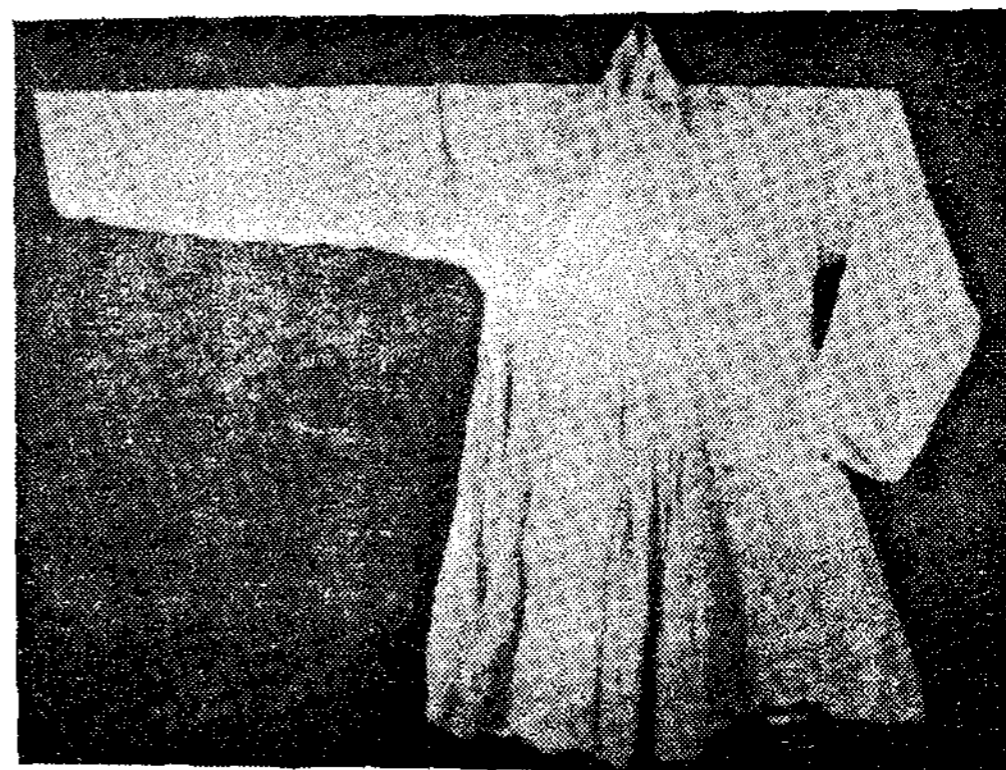
<그림 21-1> 順川金氏 모시 帖裏  
(중요 민속자료 제1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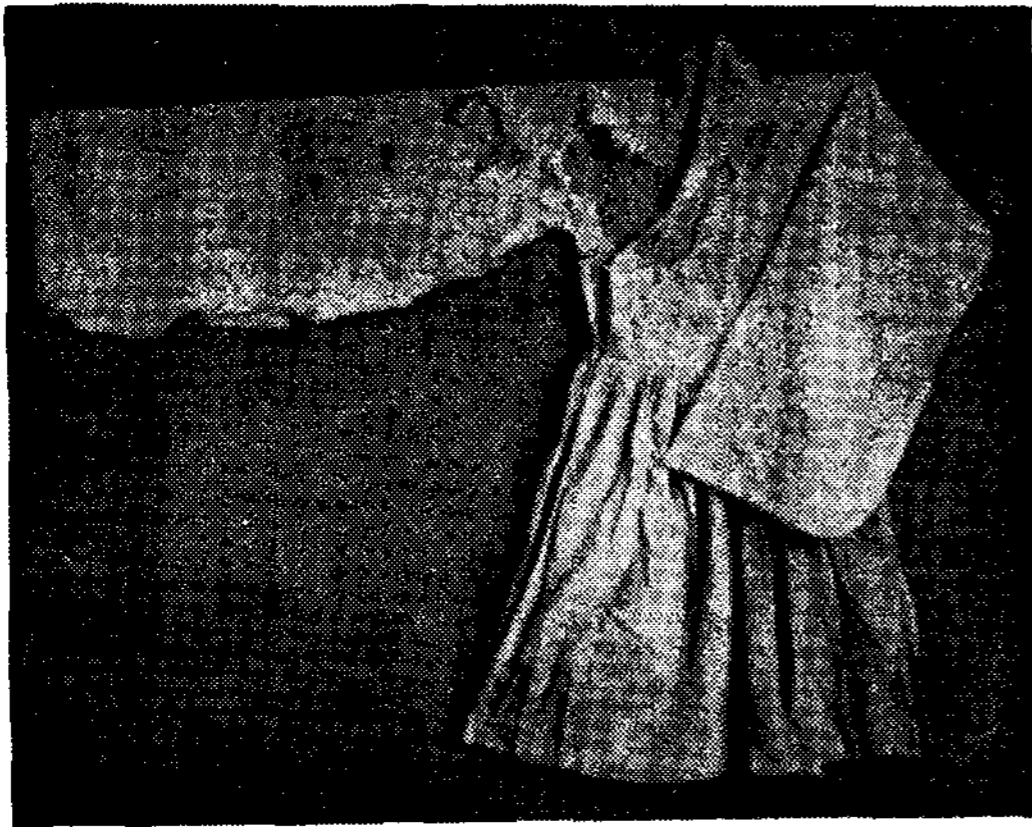
<그림 21-4> 갈색 명주 帖裏 (중요 민속자료 제1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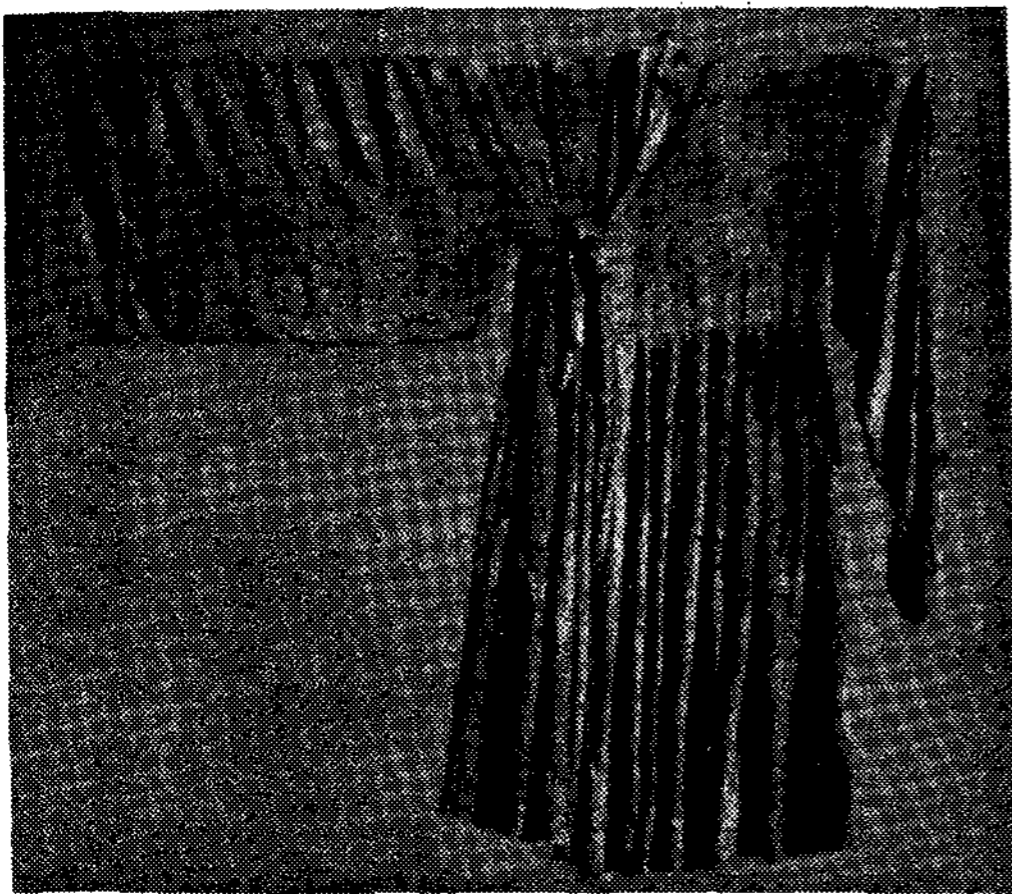
<그림 21-2> 順川金氏 누비 帖裏  
(중요 민속자료 제1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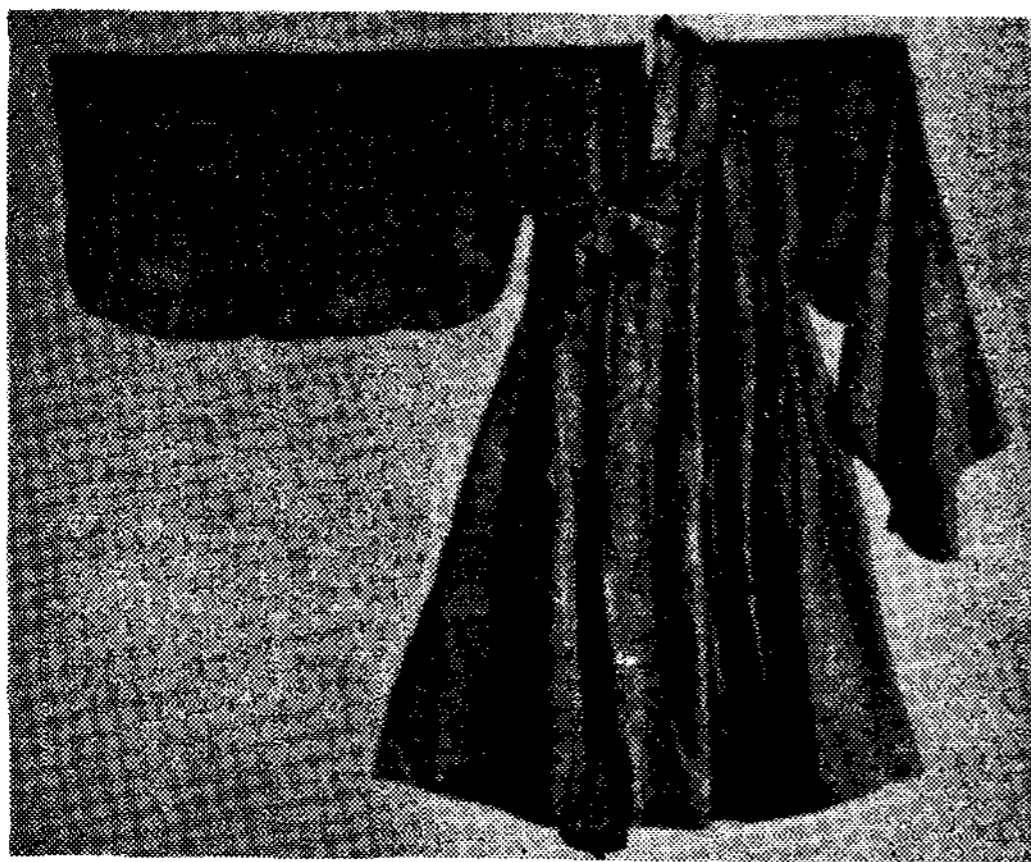
<그림 21-5> 모시 帖裏 (중요 민속자료 제111호)



<그림 21-6> 흰색 무명帖裏 (중요 민속자료 제1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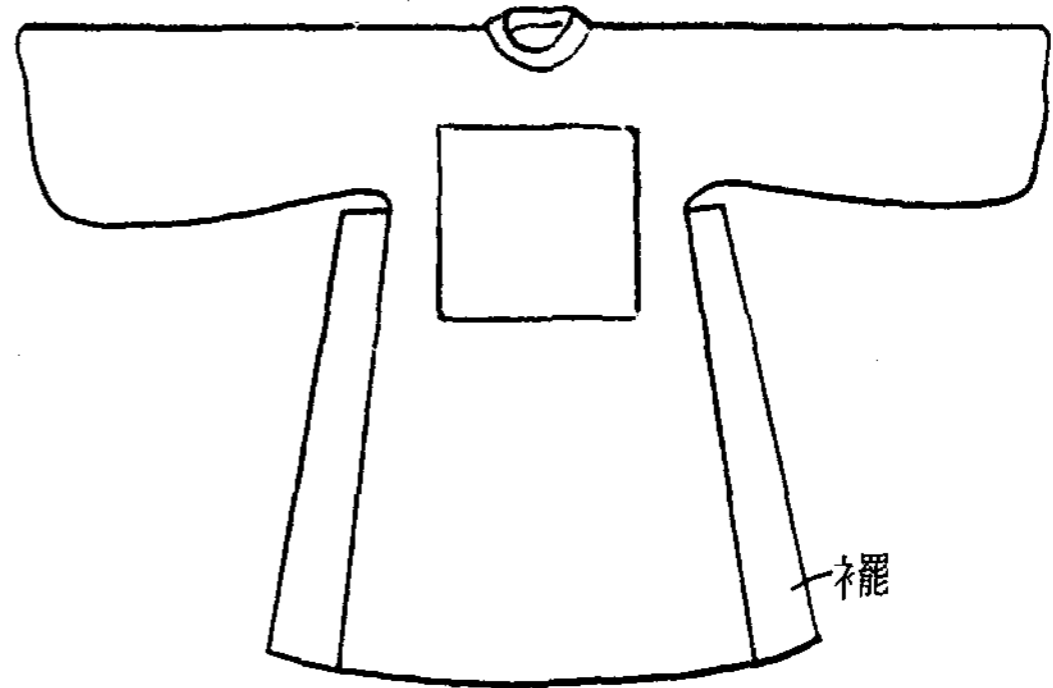
<그림 21-7> 청색 명주帖裏 (중요 민속자료 제110호)



<그림 21-8> 홍색 명주帖裏 (중요 민속자료 제110호)

④ 團領의 주름

중국 명나라(1368~1644)의 복식을 보면 관리와 황제의 常服에 겨드랑이 밑에 주름을 넣어서 광활하게 한 襠가 있다<sup>17)</sup> <그림 22>.



<그림 22> 明代補服

(중국 역대 복식대관, p.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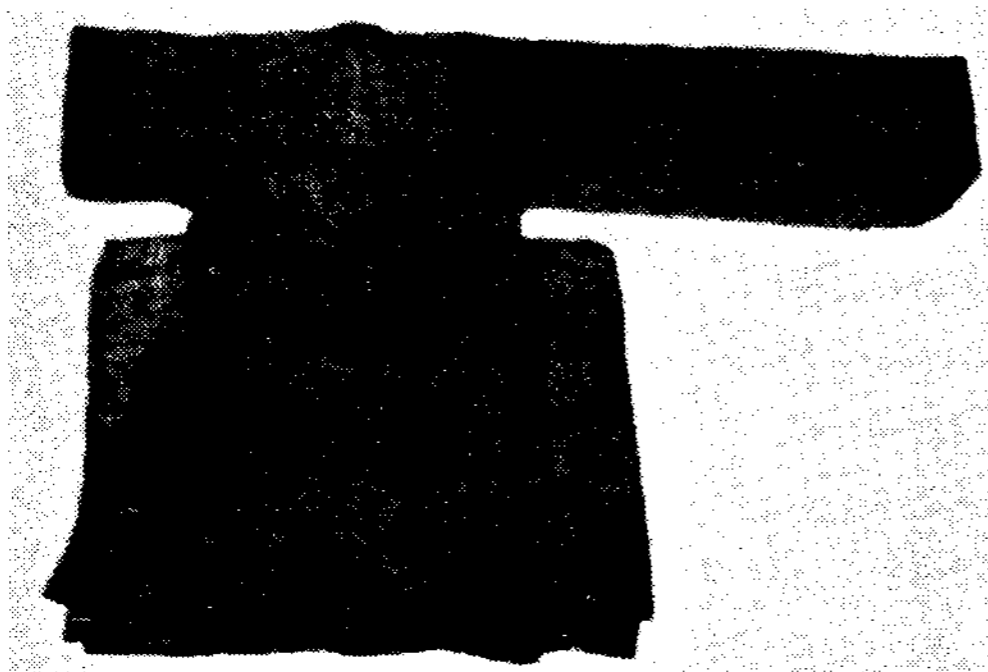
또한 조헌의 東還封事에 보면 “중국인의 옷은 구멍이 뚫린 蟒龍帖裏이나 衣撒直領을 입었고 띠는 細條를 쓰는데 榻前에 시립하는 사람이라도 이 옷만 입으므로 祿이 적은 벼슬아치들도 또한 마련 하기가 쉽습니다”<sup>18)</sup>고 하였는데 이 衣撒直領은 앞은 帖裏같고 뒤는 直領같은데 좌우 양쪽이 주름 즉 襠가 있다. 이 襠는 우리나라 임란前後의 團領冠服과 直領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표 4>와 같다.

<표 4> 團領 주름 비교표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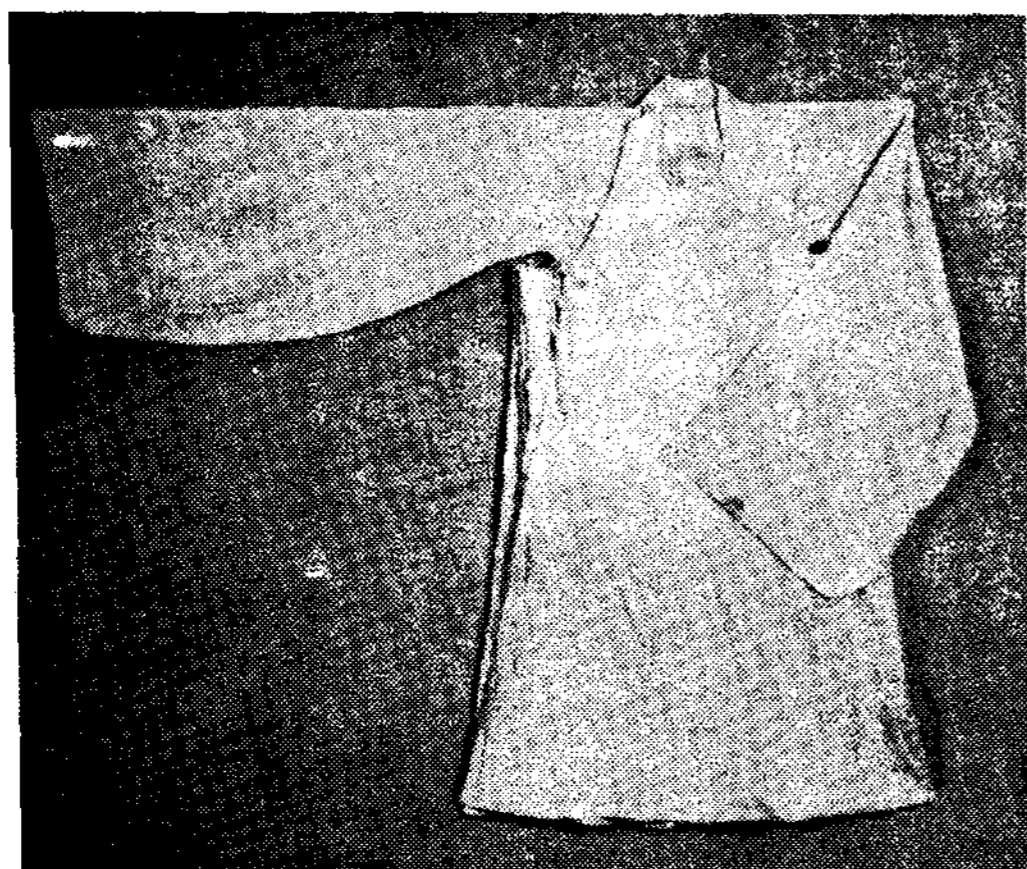
| 시 대 | 1400~1450 | 1529~1604 | 임란직후 | 1558~1618 |
|-----|-----------|-----------|------|-----------|
| 명 칭 | 남양홍씨      | 동래정씨      | 박장군  | 김 위       |
| 재 료 | 비 단       | 무 명       | 소색삼베 | 황갈색명주     |
| 襠   |           | 18        | 16   | 15        |
| 그 립 | 23-1      |           | 23-2 | 23-3      |

17) 李妙齡, 「中國歷代服飾大觀」, 대북 : 백령출판사, 1973, p. 152. ; 左右脇下還有一照瀾邊, 當時稱“襠”.

18) 「증보문헌비고」, Ibid., 장북2 제80권, p. 298.



〈그림 23-1〉 남양 홍씨 圓領  
(석주선, 「衣」, p.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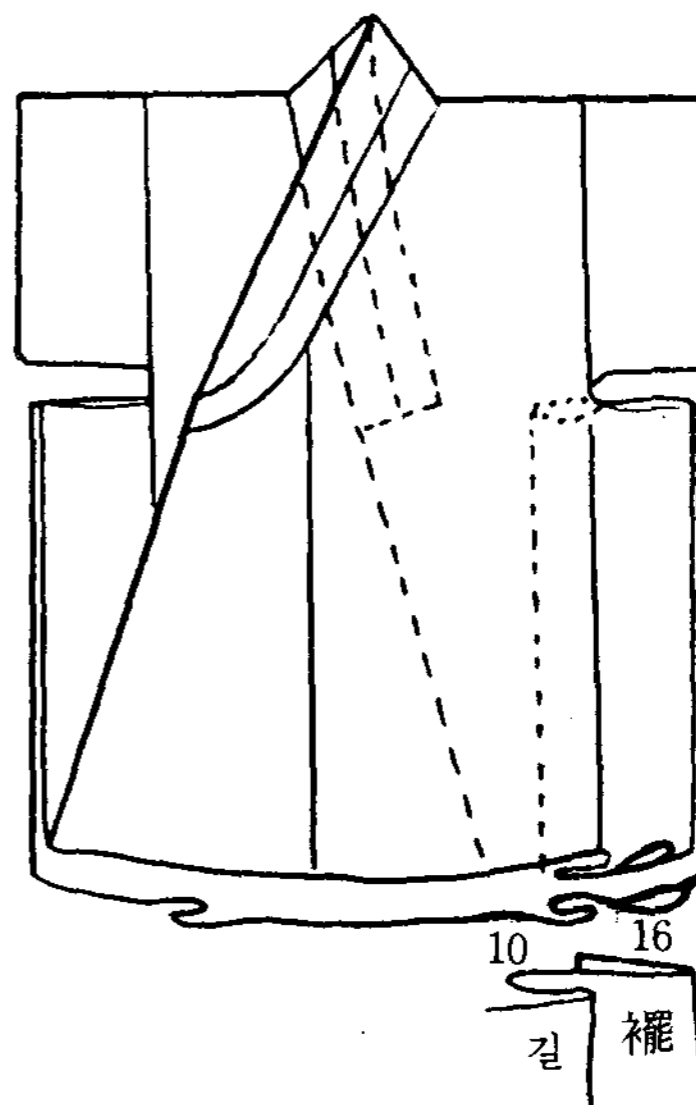
〈그림 23-2〉 소색 삼베 圓領  
(중요 민속자료 제1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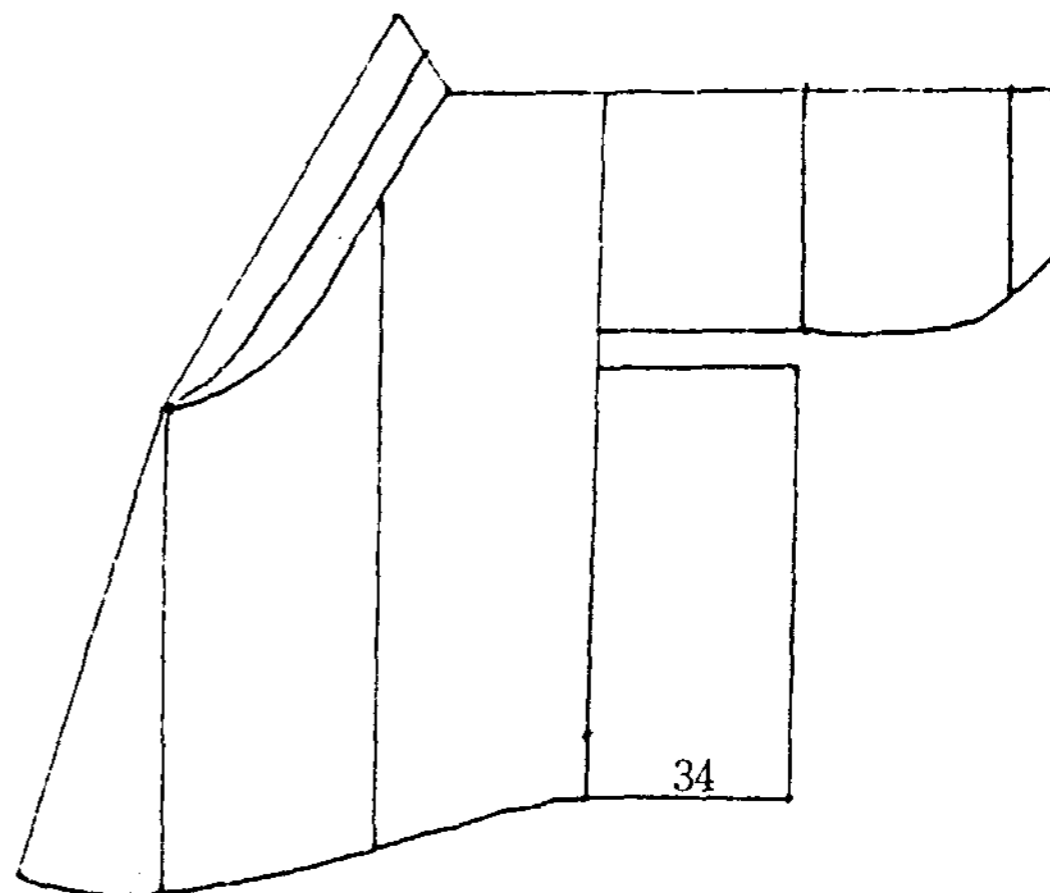
〈그림 23-3〉 황갈색 명주 圓領  
(중요 민속자료 제118호)

⑤ 直領의 주름

直領의 襠는 明나라 남자 便服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壬亂前後 출토복식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표 5〉와 같다.



〈그림 24-1〉 半袖直令袍(단국대 박물관 7317)



〈그림 24-2〉 肱 직령포(한국복식 7호, p.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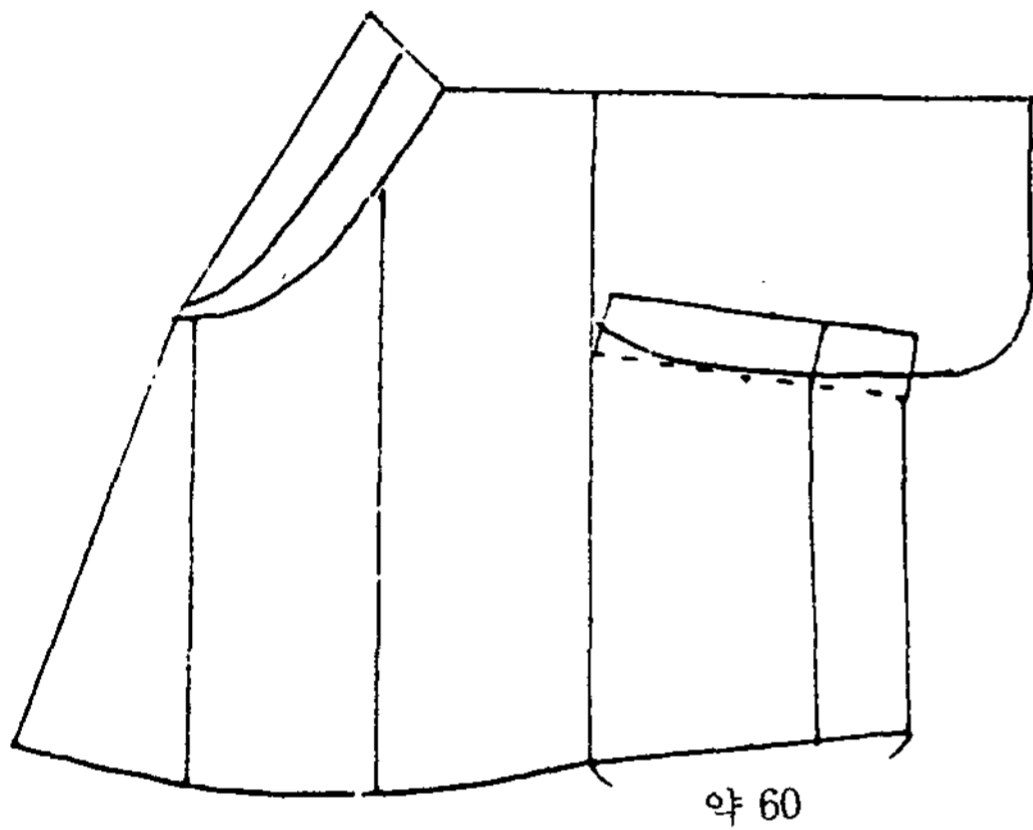
추측컨대 襠의 펼친 넓이가 40cm 이상인 것은 〈그림 24-1〉처럼 길쪽으로 주름이 하나 있고 襠가 있는 것으로 이중 주름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며, 30cm 내외인 것은 길쪽에 주름이 없고 襠만 있는 것 같다.

<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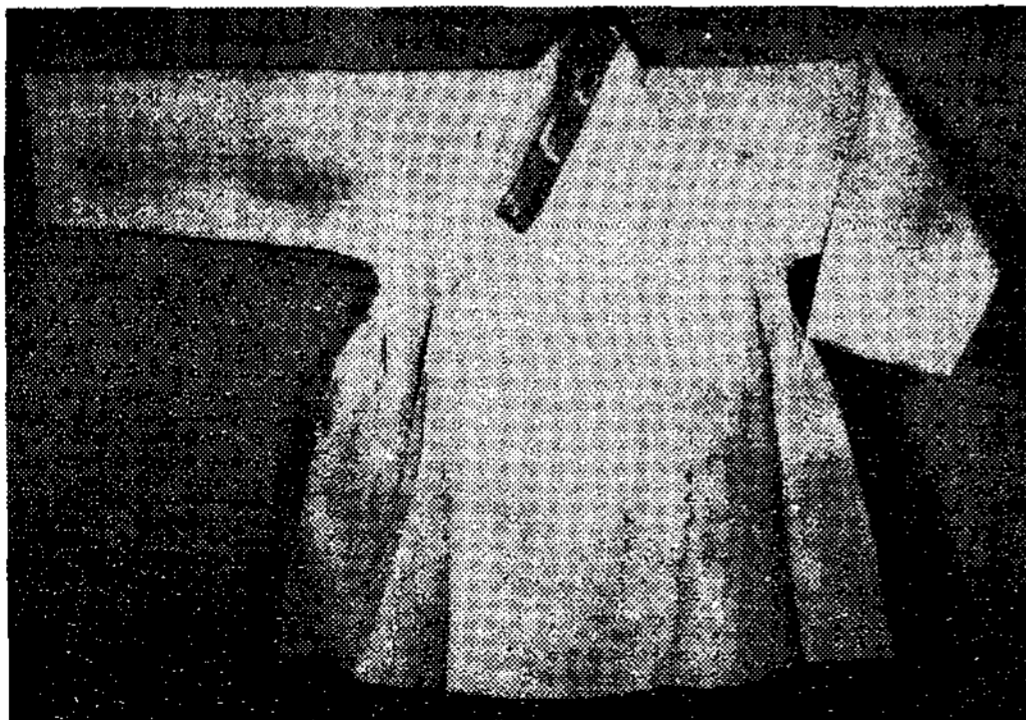
直領 주름 비교표

(단위 : cm)

|         |           |           |      |      |           |       |
|---------|-----------|-----------|------|------|-----------|-------|
| 시 대     | 1509~1580 | 1529~1604 |      | 1530 | 1593~1616 |       |
| 명 칭     | 정응두       | 동래 정씨     |      | 순천김씨 | 김 위       |       |
| 재 료     | 황갈색생주     | 숨직령포      | 홀무명  | 갈색면유 | 갈색명주겹     | 황갈색명주 |
| 裱(펼친넓이) | 52        | 34        | 약 60 | 약 48 | 35        | 29    |
| 그 림     | 24-1      | 24-2      | 24-3 |      |           |       |



<그림 24-3> 홀무명 직령포  
(한국복식 7호, p.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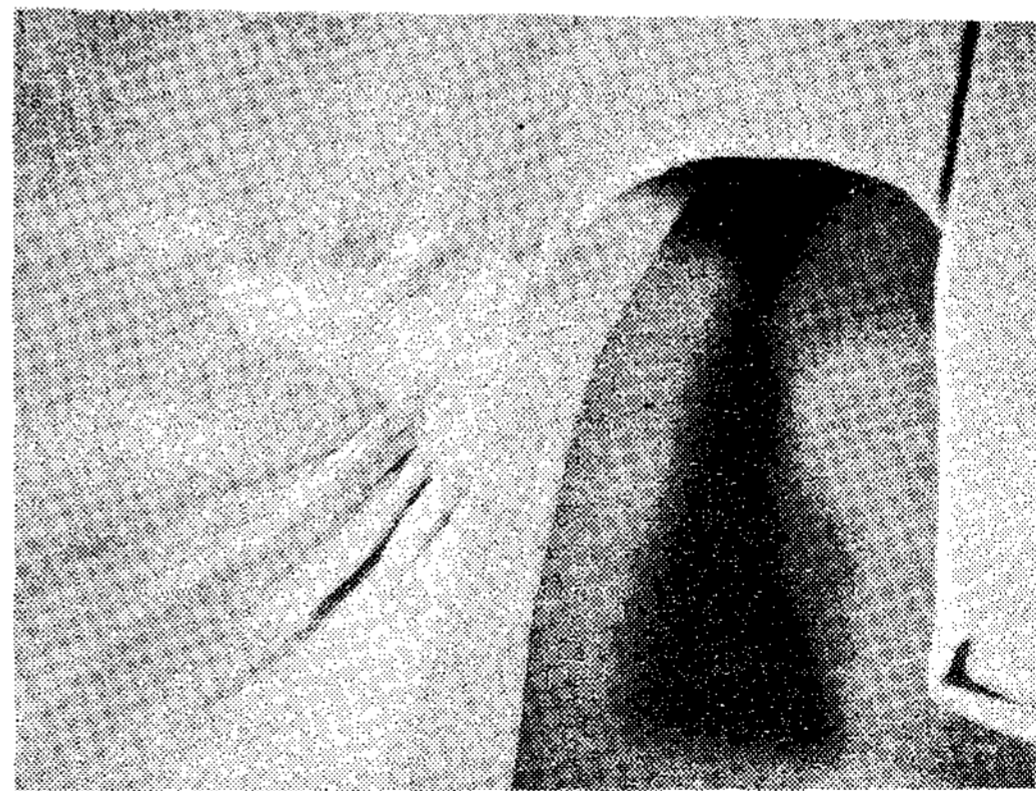


⑥ 腋注音袍의 주름

1590년대의 李彦雄의 靑紳綿納衣直領袂腋注音袍는 청색의 매우 고운 목면으로 된 袍로써 양 옆구리에 정교하게 gaugeing을 잡았다. 0.1~0.2cm로 촘촘히 규칙적으로 포개어 접고는 밑으로 2cm정도 떨어져서 홈질을 한 다음 실을 잡아당겨 주름이 퍼지지 않고 나란히 있도록 하였다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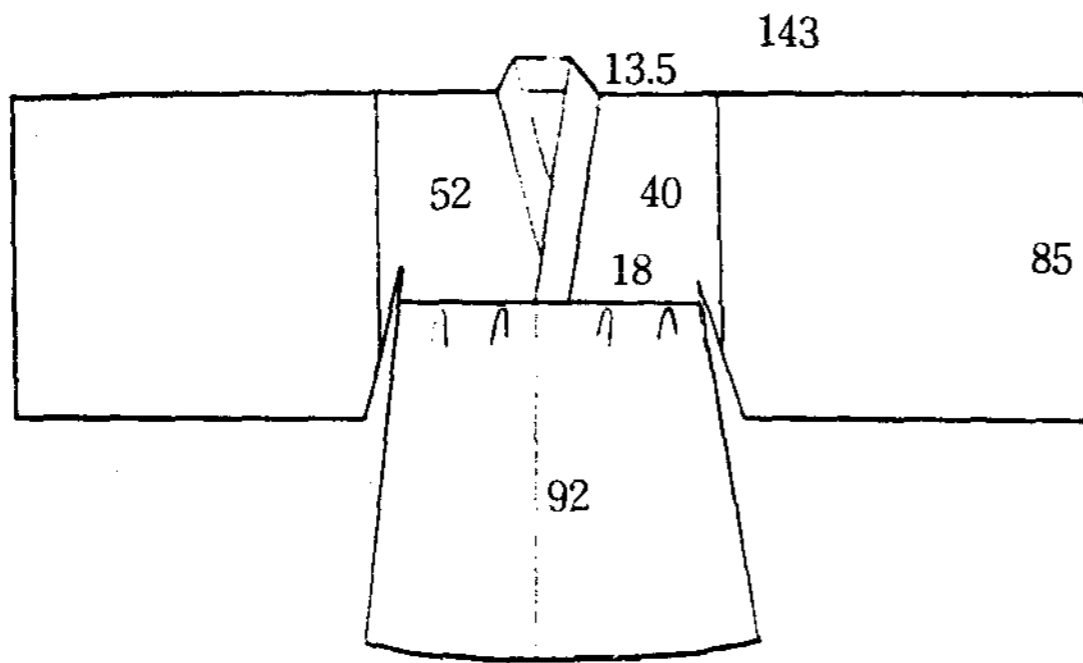
⑦ 長衫의 주름

사명대사(1544~1610)의 長衫주름은 8개의 맞주름으로 되어 있으며 주름의 간격은 18cm이다 <그림 26>. 또한 송광사에 1946년경으로 보는 기산스님의 자색 長衫은 10개의 맞주름으로 되어 있으며 주름의 간격은 10cm이다.<sup>19)</sup>



<그림 25> 腋注音袍(중요 민속자료 제1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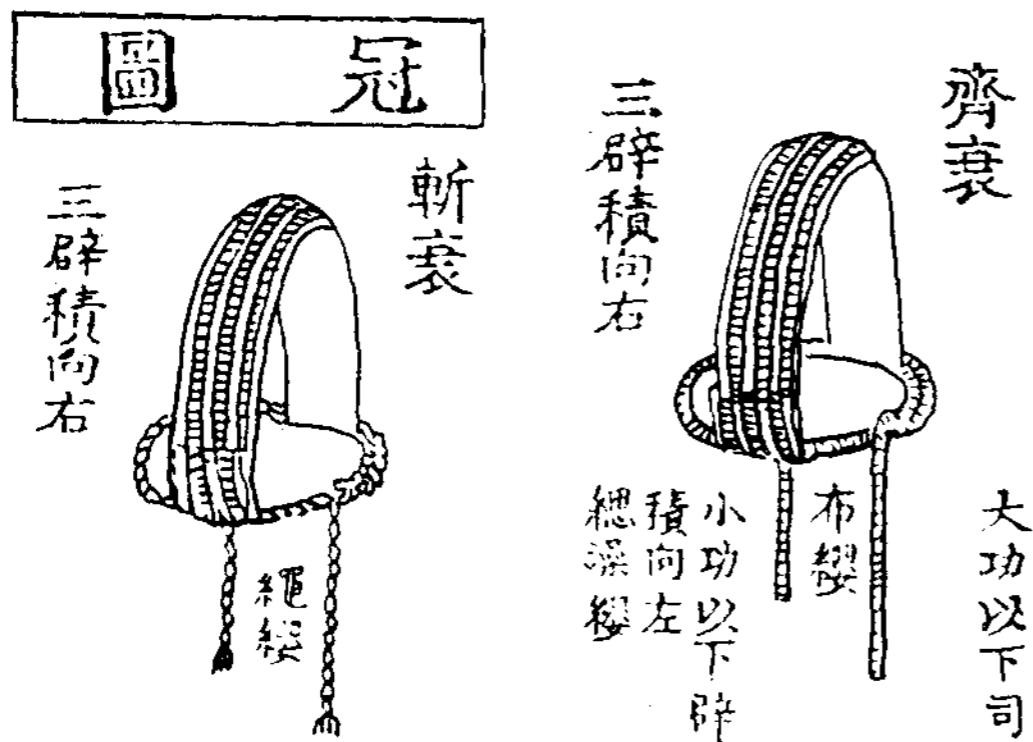
19) 임영자, Ibid., p. 112.



<그림 26> 長衫(표충사에 소장된 사명당 유물)

⑧ 喪服冠의 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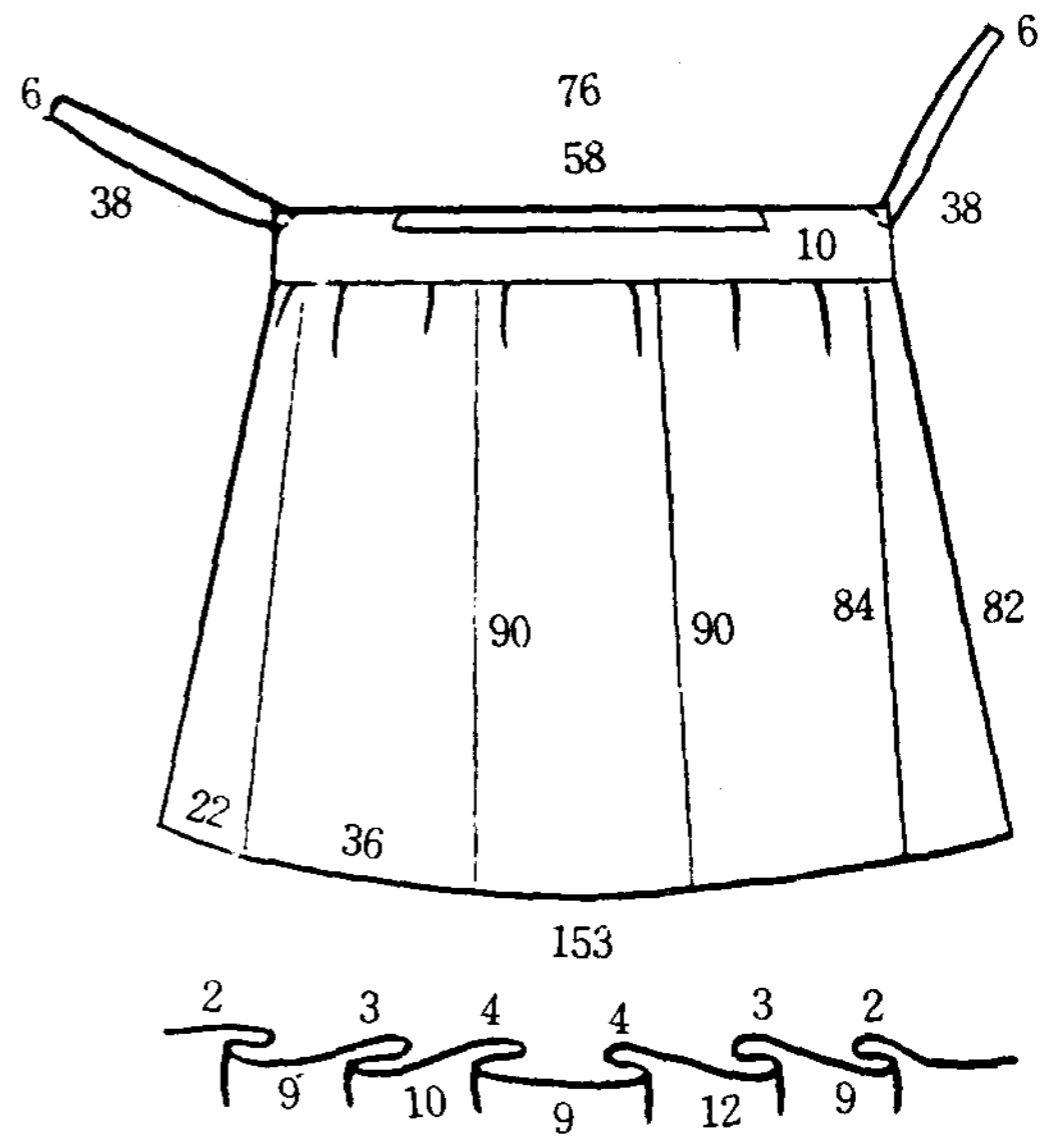
먼저 두꺼운 종이를 廣이 5寸 2分半이 되게 재단하고 거기에 布를 싸서 붙이게 된다. 세로로 3개의 주름을 만드는데 1개의 넓이가 7分半되게 3개의 襷積을 만들면 그 넓이가 3寸이 된다.<sup>20)</sup> 이 주름은 左向의 경우와 右向의 경우가 있는데 斬衰, 齊衰, 大功은 重服으로 세번 右向으로 접으며, 小功 總麻는 輕服이므로 세번 접되 右向으로 한다.<sup>21)</sup> <그림 27>



<그림 27> 冠(四禮便覽)

⑨ 천의의 주름

<그림 28>은 겉은 청색 명주이고, 안은 옥색인 천의로 머리에 쓰기 편하게 머리가 닿는 중심에는 box형 주름을 접고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으로 접어 있다.



<그림 28> 천의(경북궁 민속 박물관 5183)

위 고찰 결과 여자 치마의 주름이 고려시대의 pleat 대신 gathers로 바뀌었으며 의례복식인 전행 옷치마, 남자의 裳에서만 pleat가 그대로 보인다. 남자 바지의 주름은 없어지고 여자 속바지, 단속곳 등에는 주름이 있어 고구려시대의 바지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袍의 종류는 크게 허리선이 절개된 것과 허리선이 절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袍의 주름은 전부 허리선 밑에 넣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허리선이 절개된 袍는 帖裏과 腋注音이며 허리선이 절개되지 않은 袍는 團領과 直領으로 넓은 주름인 襠로 되어 있다. 帖裏은 초기의 것은 gaugeing과 gathers로 上衣가 길고 下衣가 짧으며 下衣가 옆으로 많이 퍼져 있으며 후세로 내려오면서 pleat와 gathers로 上衣가 짧아지고 下衣가 길어지면서 下衣의 silhouette이 직선이 되어 진다. 의례복식인 裳과 종교복식인 長衫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IV. 한복 주름의 표현성

한복의 주름은 접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 많고

20) 김영자, Ibid., p. 31.

21) 이미경, "喪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도사대, 1977, p. 39.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다.

#### 1) 정숙성과 품위

고구려 장천제1호무덤과 무용총에서 시종인 듯한 여자는 바지를 입으며 상류층인 듯한 여자와 높은 신분의 여시종은 치마를 착용하였다. 하지만 입은 여자보다는 바지 위에 주름이 많은 넓은 치마를 덧입은 여자는 더욱더 많은 정숙성과 품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도 서민의 두루치치마나 팔푼치마, 巫服의 등명치마는 짧고 폭이 좁아 속바지가 다 보여 품위가 없어 보이지만, 상류층여자의 풍성하게 길고 많은 주름을 접은 폭넓은 치마는 정숙성과 품위를 나타낸다. 여기에 속곳, 단속곳, 無竹伊 등에 주름을 접어 겹겹이 끼입어 下體를 부풀리며 신체의 下部를 은폐하여 정숙성을 유지케 한다. 남자의 團領과 直領의 襪은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품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많은 주름과 겹겹이 끼입은 옷과, 신체의 下部은폐,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품위와 정숙을 나타내는 것 같다.

#### 2) 신분

고구려 장천제1호무덤에서 상류층이라고 생각되는 여자는 주름이 많고 치마가 넓고 길며, 여시종이라고 생각되는 여자는 주름이 적고 치마가 좁고 짧아서 치마밑에 바지와 신발이 보인다. 이것은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도 서민 치마는 주름이 적으며, 지위가 높을수록 치마가 풍성하고 주름이 많아 역시 신분을 나타내는 것 같다. 조선시대 여자 꼬리치마는 여밈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에 따라서 주름골의 방향이 달라진다. 왼쪽 여밈이면 주름골의 방향이 왼쪽이며 오른쪽 여밈이면 주름골의 방향이 오른쪽이다. 양반계급은 치마를 왼쪽으로 여미고 하숙배와 기생들은 오른쪽으로 치마를 여미어 사회의 계급에 따라 여밈을 달리하여 신분을 표시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치마를 왼쪽으로 여미는 곳은 서울·경기·충청·전라·강원도이며 경상도는 일부를 제외하고 오른쪽이며 전남에서도 진도만이 오른쪽 여밈이며 제주도는 전 지역이 오른쪽으로 여민다. 이것은 가문을 자랑했던 양반들이 가문의 표시로

老論계열은 왼쪽 치마를 입었으며 南人계열은 오른쪽 꼬리치마를 입은 것으로 당파를 나타내는 것이다<sup>22)</sup>라고 하였다.

#### 3) 儀禮

喪服 冠의 주름은 左向의 경우와 右向의 경우가 있는데 雜記에 이르기를 吉冠은 襠縫이 左로 향하고 左는 陽이 吉이 되며, 凶冠은 右로 향하고 右는 陰이 凶이 되는 것으로 보아 大功以上은 주름을 右向토록 하지만 小功과 襪는 輕한 까닭에 左로 향하여 吉한 것과 다름이 없도록 한다.<sup>23)</sup>고 하였다. 祭服에 입는 裳과 朝服에 입는 裳의 주름에 있어서 祭服은 주름수가 앞이 奇數이고 뒤가 偶數인 반면에 朝服은 앞이 偶數이고 뒤가 奇數인 것을 보아서 奇數를 창조의 數로 숭상하므로 朝服보다 祭服을 더 중히 여긴게 아닌가 추측된다.

#### 4) 美的 표현

한복 주름의 美는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美이며 pleat는 직선의 美를 gathers는 drape의 美를 나타낸다.

##### ① 삼각형의 美

삼각형은 天符經에서 생명체의 기본 구조를 뜻하며, 샤머니즘에서 三은 三極의 원리이며 天, 地, 人을 뜻한다. 삼각형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우리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의 모습은 삼각형 구도로 그려졌으며 주름치마는 옆으로 퍼진 삼각형 silhouette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 여자의 꼭 맞는 저고리와 되도록이면 풍성하게 부풀린 치마는 삼각형 美를 나타낸다. 임란 전후의 腋注音은 허리의 앞 뒤의 중심부분을 빼고 옆에만 주름을 넣어 옆으로 퍼지게 했으며, 直領과 團領의 襪도 삼각형 silhouette을 보여준다. 또 帖裏의 gaugeing은 다른 주름과는 달리 옆으로 퍼져서 삼각형의 풍성한 美를 보여준다. 조선후기에 오면서 삼각형구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주름이 남자 복식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 團領과 直領의 襪도 없어져 뒷판에 붙이게 되며, 帖裏의 풍성한 gaugeing도 없어진다. 다만 여자 한복에만 치마와 속바지에 주름이 잔존하게 되었으며 이것도 좌식생활에서만 풍성한 삼각형 美를 나타내주며 활동할 때는 거들치마로

22) 고부자,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복식」 7호, 1989. 5, p. 105.

23) 김영자, Ibid., p. 31.



적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다.

다. 그러나 고구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복식의 美는 삼각형이며 이 삼각형 美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자의 경우 인체에 가장 가는 허리 부분에 속바지·단속곳·無竹伊의 주름을 겹겹이 접어 입어 허리 부분을 최대한으로 부풀리어 가장 완벽한 삼각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 ② 직선의 美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치마주름은 딱딱하고 경직되고 절제된 기하학적 美를 나타낸다. 종교복식인 長衫의 맞주름은 기하학적으로 원을 8내지 10등분하여 정확히 맞주름을 접어 넣은 것으로 엄격하고 조화로운 직선의 美를 보여준다. 의례복식인 裳에 쓰이는 pleat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을 보여주며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 주름의 수직성은 누비와 색동저고리, 고름 등과 더불어 한복의 직선의 美를 만든다. 이 직선의 美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치마와 더불어 가장 변화가 더딘 종교복식과 의례복식에 나타남으로 가장 오래된 美의 하나로 생각된다.

### ③ Drape의 美

한복의 주름은 drape의 美를 나타낸다. Drape는 천의 재료에 따라 주름의 종류에 따라 옷을 입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는 치마 주름은 딱딱한 느낌을 주며 이것은 천의 재료가 마 종류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의 치마주름은 풍성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비단, 목면, 모시, 베 등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drape의 느낌을 달리 하였다. Drape가 잘 나타나는 주름 종류는 gathers와 gaugeing이며 특히 조선시대 꼬리치마와 같이 넓은 천을 주름 잡았을 때는 입는 방식에 따라 美的 표현을 달리한다. 양반 계급에서도 보행시에는 긴치마를 거두어 들고 다녔는데 이를 거들치마라고 하였으며 四色黨에 따라서 drape를 달리 잡아서 입었다 한다. 혜원의 인물 풍속도에서 보면 주모나 농사꾼, 기녀, 노비들이 치마를 걷어올리고 허리띠를 매고 있다. 尹斗緒의 採艾圖에서 보면 나물캐는 여인이 치마를 앞으로 주름 잡아서 묶었으며 尹愍의 挾籠採春에서는 뒤중심으로 치마를 모아서 묶어 서양의 bustle style을 연상케 한다. 조선시대 치마의 주름은 수리적으로 완벽한 직선이 아니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울동적

이며 움직이는 動的인 주름이다. 여기에 한 손으로 치마단을 감쳐 올려 생기는 drape의 美는 층층을 이루면서 몸체의 움직임과 함께 리듬감과 조화미를 생기게 한다.

## VI. 結 論

이상의 주름에 대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한복 주름의 특징을 알 수 있다.

1) 여자 치마의 주름이 고구려시대는 Pleat였으나 조선시대에는 gathers로 바뀌어졌다. 주름을 잡는 방법의 변화는 고구려시대의 기하학적인 직선의 美를 부드럽고 울동적이고 動的인 drape 美로 바꾸었으며, 치마의 형태도 고구려시대의 삼각형에서 조선시대에 항아리 style로 변하게 하였다.

2) 의례복식인 裳과 종교복식인 長衫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거의 변함이 없으며 이것은 의례복식과 종교복식이 가장 더디게 변한다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 쓰이는 pleat는 고구려시대의 치마 pleat와 함께 우리의 가장 고유한 주름의 형태로 생각된다.

3) 고구려시대의 남자 바지에는 주름이 있으나 조선시대의 남자 바지에는 주름이 없어지고 여자의 속바지 단속곳 등에만 주름이 남아 있어 고구려시대의 바지가 그대로 여자 속바지에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4) 고구려시대의 袍에는 주름이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袍에 주름이 생긴다. 허리선을 절개한 袍는 허리선 밑에 주름을 넣었으며 허리선을 절개하지 않은 袍는 옆에 襠를 넣어 옆으로 퍼지는 silhouette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는 남자 袍에서 주름이 점점 사라지게 되며, 團領의 襠도 없어져 뒷판에 붙이게 된다.

5) 帖裏의 주름에는 gathers, gaugeing, pleat가 사용되었으며 임란전의 帖裏는 gaugeing과 gathers를 사용하여 옆으로 퍼지게 하였으며, 후기의 것은 pleat나 gathers를 사용하여 거의 직선의 美를 나타낸다. 또한 임란전의 帖裏는 上衣가 길고 下衣가 짧아 더욱 더 풍성한 삼각형 style이었으나 후기의 것은 上衣가 짧고 下衣가 길어 더욱 더 길이를 강조한 직선의 美를 나타낸다.

6) 한복의 많은 주름과 겹겹이 주름을 넣어

겨입은 옷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품위와 정숙성을 나타낸다. 또한 상류층일수록 치마가 길고 풍성하고 주름이 많으며, 서민은 치마폭이 좁고 짧으며 주름이 적다.

7) 주름 끝의 방향에 따라 신분이 다르다. 치마의 주름끝은 치마를 왼쪽으로 여미면 주름끝의 방향이 왼쪽이며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미면 오른쪽이 된다. 치마의 여밈이 왼쪽이면 양반이고 오른쪽 여밈이면 하숙배나 기생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치마를 왼쪽으로 여미면 老論이고 오른쪽으로 여미면 南人으로 당파를 나타낸다.

8) 儀禮服인 喪服의 冠의 주름도 右向의 경우와 左向의 경우가 다르다. 왼쪽으로 향하면 凶冠으로 大功 이상의 喪에 쓰고 왼쪽이면 吉冠으로 小功과 總의 喪에 쓰인다.

9) 한복의 주름은 주로 下體에 많이 사용된다. 특히 조선시대의 여성의 꼭 맞는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는 향아리 style이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속바지, 단속곳, 無竹伊 등의 허리부분에 겹겹이 주름을 접어 인체의 가장 가는 허리부분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며, 이를 위해 한복의 주름은 대부분 허리부분에 들어가게 된다.

10) Pleat는 직선의 美를 나타내며 gathers는 drape의 美를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 여자 꼬리치마의 gathers는 입는 방식에 따라 美的 표현을 달리 한다. 이 주름은 울동적이고 움직이는 動的인 아름다운 주름이다.

#### 參 考 文 獻

- 고복남. 「한국 전통 복식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86.
- 석주선기념 민속 박물관. 「한국 복식」 제7호. 서울: 단대출판부, 1989.
- 석주선기념 민속 박물관. 「한국 복식」 제8호. 서울: 단대출판부, 1990.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 1965.
- 「고구려 고분벽화」. 동경: 조선화보사, 1986.
- 김동욱. 「임란 전후기의 출토복식」. 충청북도: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3.
- 김동욱. 「한국 복식사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 「한국 복식사 사전」. 김영숙. 서울: 민문고, 1988.
- 김영심. “조선 중기의 유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 1983.
- 김영자. “常禮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대, 1981.
- 문명희. “帖裏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대, 1980.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 중요 민속자료 편(下). 서울: 삼성문화인쇄사, 1986.
- 석주선. 「민속자료조사보고서」. v1. 금관 조복 당의, 문화재관리국.
- \_\_\_\_\_. 「민속자료조사 보고서」. v4. 김병익 일가 옷, 문화재관리국, 1967.
- \_\_\_\_\_. 「민속자료조사 보고서」. v18. 경산 정완용 의대, 문화재관리국, 1969.
- \_\_\_\_\_. 「민속자료조사 보고서」. v34. 표충사에 소장된 사명당 유물, 문화재관리국.
- \_\_\_\_\_. 「衣」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 온양민속박물관. 「안동김씨 분묘발굴조사 보고서」. 온양: 온양민속 박물관, 1989.
- 이보령. 「중국역대 복식대관」. 대북: 백령출판사, 1973.
- 이미경. “喪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도사대, 1977.
- 임영자. “한국 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대학교, 1989.
- 장석향. “여자 치마의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1971.
- 정홍숙. 「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3.
- 조오순. “團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 1986.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증보문헌비고」. 서울: 천풍인쇄주식회사, 1980.
-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1982.